

# 여사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5월  
2025

2025 신춘편지소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정관지점 거래고객  
(주)명세CMK 김종섭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오송지점 거래고객  
한국바이오팜(주) 유건상 대표

IBK가  
바꾼 삶.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 나는 지금, 은행에서 창업 중

언제  
어디서나  
IBK 비대면채널에서  
사업자등록부터  
은행 거래까지  
가능한 세상,  
현실이 되다



이제, 사업의 시작을 쉽고 편하게  
IBK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5-19908(2025.03.19) 유효기간 : 2026.03.18 |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IBK고객센터(☎1566-2566), BOK고객센터(☎02-729-7633)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BK 기업은행

04	신춘편집소 여는 글	70	우리는 혼자자 아닙니다
06	신춘편집소 심사평	76	너는 나의 송, 나는 너의 경
	대상	86	마주한 눈물로 함께 희망을 봄
14	새로운 도전	92	열아홉 살의 고백과 다짐
	최우수상	98	만화로 보는 여성시대
24	40대의 새로운 시작	10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주)명세CMK 김종섭 대표
	우수상	10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한국바이오팜(주) 유건상 대표
34	다시, 봄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자투리 여행
	가작	112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양관식? 학씨!
45	다시 함께하는 그날		
51	시어머니 시집 보내던 날		
58	또 하나의 나		
	입선		
64	흔디 살아사주게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 여성시대

발행일 2025년 5월 10일 발행인(취문회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안동진, 김예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경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설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2025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함께 새로운



여성시대가 올해 방송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특별한 봄을 더욱더 빛내준 건 신춘편지쇼입니다.

1979년부터 매년 봄이면 열리는 신춘편지쇼.

지난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작품을 공모했습니다.

이번 신춘편지쇼는 방송 50주년을 맞아 최대 규모의 시상과

심사위원단으로 꾸려졌습니다.

대상에게는 상금 1천만 원이 주어졌고,

최우수상, 우수상을 포함한 수상 작품에 삼천여 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진행자 양희은, 생태학자 최재천, 시인 나태주,

방송인 서경석, 배우 박정민, 그리고 50명의 여성시대 당당이 분들이

심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신춘편지쇼의 글제는 ‘함께’와 ‘새로운’이었습니다.

함께와 새로운에 녹아있는 추억과 사랑과 희망은

우리 마음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여성시대 신춘편지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당당이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함께 언제나 새로운 여성시대가 되겠습니다.

2025 신춘편지쇼

심사평

## 인생,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고귀한 것

시인 나태주

올해도 여성시대 '2025 신춘편지쇼'에 응모된 작품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인 영광이요 즐거움이고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누구나의 인생 이든 인생은 인생 그 자체로서 의미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자신이 겪은 인생의 파노라마를 솔직담백한 편지글로 풀어낸 내용들엔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역경을 이겨내고 평화와 승리를 이끌어 낸 분들의 글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편지의 주제가 '함께'와 '새로운'이었는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싱글맘 러브스토리' '혼디 살아사주께' 같은 작품들은 주제에도 맞고 또 진정성이 있고 문장이 좋아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더러는 문장이 서툴거나 주제를 빗나갔거나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아 지루한 느낌의 글도 있었지만 진지함과 솔직함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글을 썼는데 좋은 상을 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글이란 것이 그렇고, 편지글이란 것이 특히 그런데 일단 글을 쓰는 것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고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앞으로 좋은 글을 쓰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2025 신춘편지쇼

심사평

##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

여성시대 진행자 양희은

심사를 마친 후 전에 없이 초저녁 깊은 잠에 빠졌다. 내 몸과 마음이 슬픔, 기쁨, 죽음, 버림받고 또 누군가는 따뜻하게 품어도 주고, 포기, 배신, 우정, 사랑, 냉랭함과 따스함, 아무도 아무 데도 기댈 곳 없는 막막함, 밀려오는 거센 파도, 햇살, 운슬 등 사연에 집중해 어지간히 소진했나 보다.

최종 심사에서 만난 수백 명의 인생! '잘 살아남는 것만이 나의 복수'란 말이 생각났다. 참여해 주신 3,500분의 당당이님들! 모든 분들께 따뜻한 햇살과 달콤한 봄바람을 보낸다.

대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네 인생은 무엇일까?

2025 신춘편집소

심사평

## 가슴을 울리는 글

생태학자 **최재천**

<여성시대> 라디오를 통해 들던 사연들을 직접 글로 읽는 감동이 남달랐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분이 질병과 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적이 놀랐습니다. 나라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모두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걸 뼈아프게 깨닫습니다.

저는 맞춤법이나 문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진솔하고 가슴을 울리는 스토리를 담아낸 글들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그냥 물 흐르듯이 죽 써 내려간 글보다는 글 속에서 약간의 반전을 꾀해 읽는 재미를 선사한 글들에 약간의 가산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초지일관 너무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얘기를 쏟아낸 글보다는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화려하게 극복하지는 못했더라도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낸 글들이 읽기 좋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최종 45편의 글 중에서 서울이 배경인 글은 좀처럼 찾기 어려웠습니다. 거의 전부 시골에서 사시거나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도시보다는 촌의 삶이 훨씬 이야깃거리가 많거나 도시보다 촌에 사는 분들이 훨씬 탁월한 문학적 감수성을 지녔다는 방증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 백내장 수술을 한지라 읽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술한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여 샤워도 못하고 있는데 글을 읽으며 자꾸 눈물이 북받쳐 힘들었습니다. 물이 위해하지 눈물은 괜찮기를….

2025 신춘편지쇼

심사평

## 뜨거운 가르침

전 여성시대 진행자 서경석

새롭고 다양한 도전을 위해 8년여를 함께했던 여성시대를 떠난 지도 거의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진행자로서는 함께하지 못했어도 라디오 주파수를 95.9로 고정해 놓고 열혈 청취자가 되어 묵묵히 참여했기에 오랜만에 하는 여성시대 '신춘편지쇼'의 심사평 쓰기가 그리 낯설진 않네요.

제가 진행자로 있을 때 조연출이었던 후배가 올해 여성시대 연출이 되었다며 섭외 전화가 왔을 때 얼마나 반갑던지요. 게다가 글제가 '새로운'과 '함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새로운 삶을 위해 여성시대와 함께하지 못하게 된 저를 초대하려고 정한 건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었을 테고 왜 그렇게 정했는지 잠깐 생각해 보니 나름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여러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

하게 될 국민들에게 ‘여성시 대학교’가 살짝쿵 힌트를 주는 것이라고. 바로 ‘함께’인 거죠. 힘들 때일수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자.

예심을 통과한 마흔다섯 편의 아름다우면서도 구슬픈 글,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에 담겨 있는 공통점은 ‘함께’하면 이루어지고, 설사 완성되지 못하였어도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대상은 놀랍게도 내 곁에서 나를 항상 지지해 주는 ‘내편’만이 아닌,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 소중한 연인과의 결혼을 7년이나 늦추게 하고 도망간 친구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명불허전 여성시대 청취자 여러분의 그릇 크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것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그렇다고 방향만 하며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되겠지요. ‘신춘편지쇼’ 응모작들의 뜨거운 가르침 받들어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시작을 도모해 보아요!

2025 신춘편지쇼

심사평

## 진심을 이길 수 있는 글은 없다

배우 박정민

며칠간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진심을 이길 수 있는 글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글을 씁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글, 남에게 보여 줄 수 없는 글, 혹은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되는 글들이요. 꽤 오랜 시간 그렇게 글을 써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글을 제법 멋지게 쓰는 기술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유려하고 부드럽게 말이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는 마음을 다시금 먹게 되었습니다. 글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는 요 며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제가 가장 힘든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비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사연을 읽다 보니 저보다 오랜 인생을 사신 어른들의 글이 많았습니다. 제가 감히 그 글에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더군요. 그래서 보통은 90점 그리고 제 가슴에 깊이 박힌 사연에만 100점을 드렸습니다. 이 숫자가 이분들의 마음을 재단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흔다섯 개의 사연이 전부 저를 웃고 울게 만들어 주셨다

는 것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가족으로 시작해 가족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키워드에 ‘가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함께’라는 키워드의 종착지는 결국 ‘가족’이군요. 상처를 주는 것도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가족’이라는 점이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기회로 저희 가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가족에게 과연 좋은 구성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성시대’ 피디님의 제안을 받아들일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저 마흔다섯 편의 글을 읽었을 뿐인데 한층 깊어지고 성장한 저의 감정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었으니까요.

어렸을 때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OTT나 수많은 플랫폼이 생기면서 등지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 사연들을 읽어보니 진짜는 역시 라디오에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식적으로나마 챙겨 들겠습니다.

시차 적응에 실패에 강제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여성시대’를 틀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양희은 선생님과 김일중 선생님 그리고 안동진 피디님, 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신중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고, 동시에 언젠가는 꼭 찾아뵙겠다는 약속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모쪼록 ‘여성시대’의 모든 분께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 여성시대 신춘편집소

대상

## 새로운 도전

오영남 |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저는 1973년 봄에 중국 흑룡강성의 한 조선족 농촌 마을에서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동포 3세로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그 때에는 조선족들이 대부분 공동체 생활을 해오고 아이들의 교육도 우리말과 우리글로 받을 때였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중국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도 사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산 넘고 물 건너면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그 지방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은 우리말과 글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우리말 도서가 귀한 중국의 농촌 마을에서 엄마는 딸을 위해 조선족 문학지를 주문해 주고 현성에 다녀올 때마다 서점에서 새로 나온 우리글 도서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토끼전,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은 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얼음에 박 밀듯 동생들과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저를 부모님은 대견한 눈길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훈민정음이 여러 시대를 거쳐 주시경에 의해 현대에는 한글로 알려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상도' '여명의 눈동자' '미실' '김 약국의 딸들' '나무' '엄마의 말뚝' 등의 소설책들을 읽으면서 복잡한 인간관계와 갈등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지금에 돌이켜 봐도 조선족 마을에서 부모 형제와 함께 우리말과 글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아온 시간이 내 생애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러기에 유년의 추억은 살아오면서 가난한 나의 영혼을 살지게 해주고 생활에 의욕을 주었습니다.

1992년에 한중수교가 되면서 조선족 사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로 농경으로 중국의 변방인 흑룡강성, 료녕성, 길림성에 분포되어 살아가던 조선족들은 중국 개혁개방의 시대 흐름과 인구 유동의 자유로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면하고 대도시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과 우리글을 할 수 있다는 건 지난 90년대에 중국에서 아주 큰 인기였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대학을 나온 조선족 청년들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고향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던 저도 한국 기업에 취직되어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 중국의 연해 도시 청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많은 마을 사람이 계란을 가져오고 용돈을 쥐여주면서 축하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응원과 축복 속에서 난생처음 혼자서 고향과 부모님 곁을 떠나 먼 길에 올라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조선 사람들의 통역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승만 괴뢰군으로 교과서에서 배워 2박 3일 달리는 열차에서 끝없이 뒤척이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친절하고 배려해 주는 한국 주재원들이 고향과 나이를 물어보면 얼굴이 빨개지던 그때 내 나이 스물한 살이었습니다. 웃기는 에피소드도 참 많았습니다. 본사에서 걸려 온 전화를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까 봐 의자에서 일어나 큰소리로 받아 사장님이 놀라서 방에서 뛰쳐나오던 일, 찍하면 “일없음다”라고 말해 당황해하던 한국 주재원들의 얼굴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북경에서 결혼하고 딸애를 키우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는 우리말 학교가 없었습니다.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딸애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조기교육을 한답시고 연변에 있는 시택에 갔을 때 서점에서 벽에 붙일 수 있는 우리글 자모표를 사 왔습니다. 짬짬이 모음 자음을 가르치고 우리말 동요도 가르치면서 엄마의 직책을 하느라 부산을 떨었습니다. 꼬꼬만 입으로 ‘곰 세 마리’도 곧잘 부르는 딸애의 귀여운 재롱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무한한 행복에 잠겼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딸애는 우리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들인 공이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세대들까지만 해도 조선족 동네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와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우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북경에는 조선족 학교가 없으니 우리 아이들의 민족어 교육이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딸애와의 소통이 줄어들고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배 아프게 난 딸인데 점점 다른 별에서 온 아이 같았습니다. 집에서 우리말을 강요하다시피 했지만 중국어로 받아넘기는 딸애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은 엄마가 한된장찌개, 김치가 최고라 하면서 우리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딸애

를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중국어 학교에 보내면서 억지를 부리는 저도 한심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조선족 친구 한 명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중국어가 편해질 수밖에.

부모가 집에서 우리말을 하면 따라 할 거라는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알아듣지 못하고 가끔 한두 마디씩 하는 것조차 혀가 굳어져 한쪽이 우리말을 하는 격이어서 얼떨결에 웃어버리고 지적해 주면 다시는 하지 않는다고 토라졌습니다. 딸애가 모국어를 잃어버린다는 건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현실적으로 이렇다 할 빠른 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말 주말학교라도 있으면 당장 신청하고 싶었습니다.

문득 나의 엄마가 그랬듯이 나도 딸애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뇌리를 쳤습니다. 먹고 사는 게 바빠다는 핑계로 독서를 안한 지도 오래된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에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교보문고로 가서 에세이집, 소설책을 사와 머리맡에 두고 보았습니다. 처음에 딸애는 우리말 문학 도서를 읽는 저를 대단한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다 읽을 수 있을까 의아한 표정도 짓고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년 모국 연수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애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6박 7일 간의 모국 방문 연수를 마치고 공항에서 “엄마~”라고 부르며 밝은 표정으로 다가오는 딸애를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아기 때 들어보고 십여 년 만에 들어보는 엄마라는 소리에 가슴이 몽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우리말을 하려고 애쓰는 딸애를 보면서 모국 연수에 보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말을 하는

딸애를 보고 우리 부부는 말없이 마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더니 딸애는 한국행에서 체험과 받은 감수를 우리에게 전달하느라 설 틈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와서 딸애는 많이 변해갔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점에 가서 한국어책을 사서 짹짹 배우고 모르면 물어왔습니다. 한국 노래를 듣고 좋아하는 가사는 베껴서 외우고 우리 민족의 전통을 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때다 싶어 한국문화원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딸애와 같이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말 그대로 ‘집 나간 딸’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중국어를 한다고 해서 내 딸이 아닌 건 아니지만 생동하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딸애가 있어서 더 살맛이 났습니다.

북경 정음 우리말 학교에서 자원봉사자 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선뜻 신청했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난 날은 설렘과 막막함이 뒤범벅되어 곤혹스러웠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우리말을 하는 집 아이들은 그나마 조금씩 알아들었지만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데다가 혀가 굳어져 발음을 정확하게 따라 읽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3분의 1을 차지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첫 수업은 고심하며 작성한 교안을 써보지도 못한 채 아이들과 중국어로 말씨름하다 보니 얼마 안 되어 목소리가 쉬고 무슨 정신에 수업을 끝냈는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말문을 열도록 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은 시선이 허공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말은 외국어와 다름없었습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와 교실에 앉아 있긴 하지만 엉덩이는 좀처럼 의

자에 붙이지 못하고 수시로 시계를 쳐다보며 수업이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수업 시간에 노골적으로 우리말 공부하기 싫다고 말해 당황했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는 데다 수업 시간에도 장난이 심해 얼리고 닥치고 꾸지람해도 듣는 등 마는 등 통제가 안 되었습니다. 과연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마음만 급했고 급기야 겁도 없이 출강한 자신이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주말 쉬는 시간을 반납하고 자식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배워주려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북경의 동서남북에서 주말학교를 찾아오는 학부모들을 떠올리니 나의 옛날이 오버랩되면서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주말에 한 번, 두 시간 반 밖에 안 나오는 수업이지만 학부모들의 수고는 만만치 않았습니. 왕복으로 서너 시간 걸리다 보니 아이를 교실에 들여보내 놓고는 마땅히 갈 데도 없어 좁은 복도에서 숨죽이고 조용히 기다리는 학부모들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런 학부모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다시 힘을 내었지만 한숨이 나오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쉽게 우리말을 이해하고 좋아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마음의 병으로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입을 열게 하기 위하여 먼저 인사말부터 가르치고 동요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순번으로 선생님 노릇을 하게 하고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을 갈라 경쟁을 시켰더니 승부욕이 강한 개구쟁이 남학생들이 뒤질세라 열심히 하고 여학생들도 질 수 없다는 듯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어로 설명하게 하고 우리말로 어휘 맞추는 게임에도 흥미를 가졌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자존심이 있다는 걸 느끼

고 따로 불러내 조용히 타일렀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향에서 어릴 적의 소꿉놀이는 저에게 있어서 환상적인 순간들로 가득 찬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그 시절 친구들과 함께한 놀이는 순수한 우정과 풍요로운 경험을 선사해 무한한 즐거움과 활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저에게 더 나은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영감을 주곤 했습니다

수업 장소의 제한으로 쉬는 시간에도 마음껏 뛰어놀 수 없는 학생들을 데리고 야외수업을 나갔습니다. 학부모들이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해 오고 ‘술래잡기’ ‘제기 던지기’ ‘보배 찾기’ ‘병아리 잡기’ 놀이에 부모와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너무 신나 보였습니다. 넓고 넓은 잔디밭 위에서 굴레 벗은 땅아지처럼 근심 걱정 없이 해맑게 웃으며 아이들은 땀별창이 되어도 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학기마다 있는 수료식은 정음 우리말 학교 대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사회 각계 후원 인사들과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여서 그날을 위하여 반급마다 문예 종목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몸치인 데다가 예술 세포가 없는 나에겐 우리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난제였습니다. 무용을 전공으로 배운 적이 있는 딸애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흔쾌히 나섰습니다.

수료식을 하는 날에는 아이들을 응원하러 온 가족이 동반하여 옵니다. 예쁜 우리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의 귀여운 재롱잔치로 현장에서는 박수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학습 모범상, 예의 모범상, 학습 진보상, 개근상을 발급하여 아이들을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하니 아이들에게는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행사였습니다.

평소에 입을 기회가 없는 고운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도 남기는데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정감이 흐르며 피부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우리말 교육도 중요하지만 언어와 문자 외에도 우리 민족의 정서를 느끼게 하는 것도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속에서 어딘가 친숙한 우리 문화를 접하면서 부모님의 바람과 기대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정과 애정을 쏟으며 달렸더니 아이들이 눈에 띄게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말 주말학교에 나오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언어 문자 외에 우리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고 싶은 욕심에 예의범절과 풍속 습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면 아이들은 아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호응하면서 한층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선족 주거지를 떠나 대도시에서 태어난 조선족 아이들의 우리말 교육은 실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제대로 우리말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중국어 외에 영어에 밀려나 거의 사투를 하다시피 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학부모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북경 정음 우리말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탄탄대로가 아니어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11년을 견지하였습니다. 우리말 교육뿐만 아니라 북경에서 살아가는 조선족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운 것은 딸애도 한국문화원에서 우리말과 우리글을 배워 한국어 토익 시험에서 6급을 따내고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한국 유학

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경에서 아이들에게 우리말과 우리글을 가르친다는 것은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딸과 함께 힘든 순간을 잘 버텨내고 우리 모녀에게는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좋아하는 정음 우리말 학교를 떠나 서울에서 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중국 북경에서 자수성가하여 25년 동안 알뜰살뜰 꾸려온 살림을 접고 삶의 터전을 서울로 옮긴 건 2020년 9월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 시장에 변화가 생기면서 실업자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일자리 하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허드렛일을 해서라도 딸애의 유학 뒷바라지를 할 거라고 단단히 결심했건만 현실은 초보라고 반겨주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뭘 바라고 지금 이곳까지 떠밀려왔는지 생활의 중압감에 시도 때도 없이 스멀스멀 회의가 들어 마음이 갑갑했습니다.

서울살이 5년째,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오라는 데만 있으면 달려가고 정말 서울 아리랑 다섯 고개를 넘어온 듯 아득하고 아찔한데, 그 과정에 우리 가족이 함께 겪은 희로애락의 편린을 떠올리니 감개무량합니다. 반백이 되어서 국제 이사를 한다는 건 어찌 됐거나 큰 모험이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듯 모든 것이 낯설고 문턱이 높은 서울에서 위로받고 정을 붙이고 살 수 있게 한 것은 한글이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지하철역에 있는 시를 볼 때마다 위안이 되었고 시간 될 때마다 도서관과 서점에서 물 만난 고기 마냥 보고 싶은 책들을 읽고 구매했습니다.

여생을 서울에서 보내기로 한 우리 가족입니다. 남편은 지난 2월에 영주권을 받고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딸애도 웹툰 회사에서 PD로 일하고 5월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말과 우리글을 배운 덕이라고 딸애는 저에게 고마워합니다. 우리말과 우리글을 배웠기에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쓰던 우리말과 글이 한국에 와서 보니 어법, 문법이 많이 달랐습니다. 한 번은 딸에게 송편을 해 먹으려고 시장에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입쌀가루를 사 오라고 시켰는데 네 집이나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섯 번째 집에서 혹시 멥쌀가루를 찾는 게 아니냐고 해서 확인차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외에도 ‘리’ 씨 성은 ‘이’ 씨로, ‘리을’이 들어가는 모든 단어는 ‘이은’으로 하고 띄어쓰기도 다르고 신조어도 많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적자생존이라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한글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천명이 지난 나이에 무모한 도전을 하였습니다. KBS방송아카데미에서 드라마 창작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잘 왔다고 격려와 힘을 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 행복한 요즘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보고 색다른 경험도 해보면서 한글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열공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고 소중한 우리말 우리글이 평생 동반자가 되어 한국에서 우리 가족의 인생도 더 풍요로울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저를 응원해 주는 가족을 보면서 봄의 아지랑이처럼 내 가슴에 피어난 한글 사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최우수상

## 40대의 새로운 시작

김민진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

위~

잉 타탁타탁다~ 위~잉 타탁타탁다~

“야! 밀리잖아! 빨리빨리 하라고! 오늘 물량 못 쳐내면 다들 점심시간에도 연장인 거 알지!”

새벽을 깨우는 시끄럽고 둔탁한 기계음 뒤로 오늘도 반장의 고품섭인 잔소리가 이어졌다. 모두 부은 눈을 바짝 뜨고 졸음을 쫓아가며 반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허리 한 번 펼 새 없이 기계처럼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 또 반복하며 시작하는 나의 하루는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았다.

점심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잠시 쉴 틈도 없이 배정된 물량을 해치우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 공장 안으로 옮겼다. 그렇게 저녁까지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일을 마치고 나면 내 팔이 내 팔 같지가 않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 왔다.

모든 직원을 다 태울 때까지 기다리다 출발한 셔틀버스에서 쪽잠을 자며 왕복 두 시간 거리의 자취방에 도착하면 온몸은 손가락 하나 까닥하기 힘든 지경이었고 그대로 침대에 빨려 들어가듯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잠에 빠져들고 나면 다시 올리는 새벽 4시 30분의 알람이 또다시 나의 고단한 하루가 시작됐음을 알린다.

그렇게 새벽 출근으로 2주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야간 근무로 바뀌며 이번에 새벽 5시 30분 출근조가 올 때까지 꼬박 밤새 기계인 양 난 또 내 팔다리를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야만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무 살부터 다니기 시작한 공장. 어느덧 내 나이는 이십 대 후반을 향하고 있었고 내 몸과 마음은 너무나도 지쳐 있었다.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었다.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듣게 된 중학교 동창의 공무원 합격 소식에 당시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지만 도전이란 두 글자가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근처 서점에서 산 수험서를 끌어안고 내 도전을 응원받고 싶어서 였는지 주말에 본가에 가서 부모님께 나는 공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공부를 하겠노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내 기대와는 달리 날아든 송곳 같은 아버지의 말에 나는 시작도 전에 좌절을 맛보았다.

“공무원? 니가 공무원이 된다고? 니가 공무원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대학교 나오고 머리 좋은 애들도 될까 말까 하는 공무원을 니가 무슨 수로 한다는 말이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도 말고 공장이니 착실히 잘 다녀라. 이제 니도 나이가 곧 서른 살인데 빨리 결혼도 해야 되고 돈도 모아야지 공무원은 무슨 얼어 죽을 공무원!”

당시에는 공무원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으며 정말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어느 정도는 들어맞고 있었다. 밥을 먹던 손가락을 식탁에 쿵 소리를 내며 내던지듯 던져놓고 혀를 쭉쭉 차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나

는 잊고 있었던 아니, 잊고 싶었던 어린 시절이 오버랩되며 겹쳐서 떠올랐다.

3년 중 둘째였던 난 2.1kg의 저체중으로 태어났지만 아들을 바라고 바라던 아버지에게 딸이었던 난 태어날 때부터 관심 밖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일까? 어린 시절 나는 유독 소심하고 조용했으며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그런 아이였다.

맞벌이하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어렸을 때부터 온갖 집안일은 다 내 차지였으며 공부를 잘하는 언니는 도서관에 가야 한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항상 열외였고 아직 어린 동생까지 챙겨야 했던 나는 늘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엄마는 처음에는 미안하다 고맙다고 했지만 어느덧 조금이라도 집안이 어질러져 있으면 화를 내셨고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부모님이 화내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학교를 마치자마자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부와는 담을 쌓게 됐으며 중학교 때 내 성적은 뒤에서 새는 게 빠를 정도였다. 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신경 써주거나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새삼스럽지도 않게 그렇게 난 늘 혼자였다.

당연히 고등학교는 인문계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실업계(여상)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수업 과목 중에서 영어, 국어, 수학 등은 비중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학생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분위기였다. 대부분이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아이들과 그런 학생들에게 거침없는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가르침이 아닌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는 선생님들을 보며 그곳에서도 나는 자연스레 공부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니 오히려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 환경을

즐겼던 것 같다.

그렇게 황금과도 같던 고등학교 시절을 아무것도 이뤄 놓은 것도 없는 채 어느덧 졸업 시즌이 다가왔고 친구 중에 반은 대학으로 진학했고 반은 취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나는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한단 소리에 나도 가정통신문을 들고 부푼 기대로 아버지에게 친구들과 같이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대학? 니 지금 대학이라고 했나? 우리 집 사정 모르고 니 그라나? 우리 형편에 언니 하나 대학 보내는 것도 지금 빠듯한 거 모르나! 그리고 니 성적을 봐라. 니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공부도 안 하고 수능 점수를 이래 받아놓고 양심도 없나. 대학은 무슨, 엄마 아빠는 어디 땅 파서 돈 벌어 오는 줄 아나. 대학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공장에 취직 딱 해서 빨리 돈 벌어 올 생각이나 해라!”

화살 같은 말이 가슴에 와서 팍 꽃혔다. 등록금만이라도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내가 벌어서 다니겠다고 빌어도 아버지께겐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듯 아예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 단식 투쟁도 해보고 재수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 해도 내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너무 허무하게도 친구들은 푸른 잔디가 싱그러운 대학으로 나는 기계음이 가득한 공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럽게 친구들과는 멀어졌고 안 그래도 없던 나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기도 했고 집 공장 집 공장을 오가며 무기력하게 꿈도 없이 늘 되풀이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가 용기를 낸 내 도전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단칼에 자르는 아버지!

서러웠다.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응원만 해줘도 괜찮을 텐데. 6·25 때 태어난 아버지는 늘 본인의 말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그것들을 자식들에게 강요했다.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하지 못하는 건가? 머리가 좋지 못하면 노력이라도 해보지 못하는 건가? 시작해 보고 싶었다. 누구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도 아직 나는 시작도 해보지 않고 출발점에서 주저앉고 싶진 않았다.

뒤도 안 돌아보고 본가에서 뛰쳐나왔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다. 해보자! 해보자!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자! 그래, 어차피 나는 시작하기로 했으니 다른 사람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다독였다.

그렇게 나의 공무원 수험 생활이 시작되었다. 주야 2교대라 늘 쪽잠을 자던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고 밥을 빨리 먹고 쉬는 시간에도 한국사 책을 펼쳐 들었고 퇴근 후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졸음을 쫓아냈다.

이런 나의 모습에 공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뒤에서 수군대기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절대 공무원에 합격할 수 없다고 내가 공무원에 합격하면 자기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며 나를 비웃기도 했다. 힘들게 관히 시간 쓰지 말고 그 시간에 잠을 자라고 나를 격정해 주는 척 무시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나는 귀를 닫고 더 악착같이 공부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공부가 쉬울 리 없었다. 처음 접해보는 법 과목은 외계어 같았고 특히 영어는 늘 나의 발목을 잡았다. 외워도 외워도 다음날이면 까먹는 영어단어는 정말 나를 힘들게 했다. 한국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한국사 실력도, 그동안 내가 쓰고 말한 건 국어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국어 점수도 총체적 난국이었다. 그래도 포기하기 싫었다.

그렇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더 책을 보려고 노력했고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그해 본 시험에서 보기 좋게 나는 불합격했고 합격 점수와는 너무 큰 내 점수에 나는 울음도 나지 않았다. 특히 영어가 20점이라니! 너무도 절망적이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처음 맞본 실패에 나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있었다. 다시 책을 펴볼 용기도 내지 못하던 어느 날 나는 또한 번의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다. 왜 안 좋은 일들은 한꺼번에 오는지!

“암입니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보호자랑 같이 상의하셔서 수술 날짜 잡으세요.”

주야 2교대를 하며 공부를 한다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서였을까. 되지도 않을 것을 붙잡고 노력한 날 비웃기라도 한 듯 어느 날 나는 갑자기 암 환자가 됐고 그렇게 수술대에 누워야만 했다. 갑상선암이고 초기라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난 죽을 때까지 호르몬제를 먹어야 했고 몸에서 호르몬을 담당하는 갑상선을 떼어냈으니 온몸이 늘 물먹은 솜뭉치처럼 피곤했으며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졌다.

그렇게 자연스레 나는 공부에서 손을 놓게 됐고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배운 게 공장일이라 다시 대충 몸을 가누고 또다시 공장으로 발길을 옮기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참 빠르다. 너무 빨라서 언제 그만큼 갔는지 언제 나보다 앞서서 가버렸는지 모를 만큼 또다시 몇 번의 계절을 돌고 돌아 이제 2-3년만 지나면 내 나이 어느덧 마흔 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나는 소용돌이치듯 깊이 빨려 들어가 버릴 것 같아 겁이 났다. 허무했으며 우울했고 화도 났으며 너무도 아까웠다. 내 시간이 내 인생이! 원하는 것 하나 이루지 못하고 뭐가 좋은지 뭘 잘하

는지도 모른 채 내 꽃다운 젊음이 공장이라는 삭막한 곳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자책하던 중 구석 다락방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공무원 수험서가 우연인 듯 운명인 마냥 내 눈에 들어왔다.

‘아! 그래, 그때 그래도 나름으로 열심히 했고 노력했으며 이루고자 함이 있었기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었지.’

그때의 난 그래도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죽은 듯이 살아감을 느끼는 순간 미친 듯이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다시 ‘시작’이란 글자가 내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렇게 난 한참이나 지나서 내용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책을 펼쳐 들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였을까? 수업 내용은 많이 변했으며 더불어 책상에 한 시간도 앉아 있지 못하는 날들과 다음 날이 되면 머릿속에서 스치듯 날아가 버리는 글자들의 연속인 날들이 이어졌다. 마음은 책상에 12시간도 더 앉아 있었지만 눈은 저절로 감겨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 오기 시작했고 공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공부 내용이 어려울 때면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마구마구 주워 먹다 보니 어느새 내 몸무게는 80kg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잠을 자도 책상에서 자자는 다짐으로 기초를 다지는데 거의 일 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물론 그해 시험에는 당연히 떨어졌지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차근차근 다시 시작했고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젠 머릿속에 저장되어 감을 느낄 때쯤 어느새 나는 하루 12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기초가 없어서 진도를 나가지도 못하고 한 단어씩 찾아보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이젠 시험을 칠 때까지 이해하고 외웠던

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 반복 또 반복하는 날들이 지겹도록 이어졌다.

더불어 시력도 많이 나빠졌고 안구건조증은 너무 심해져 인공눈물을 하루에 20개씩 넣어가며 버텨야 했고 늘어만 가는 살들에 허리의 통증은 더해만 갔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 그런 고통이 더해 갈수록 더 이를 악물고 공부에 미친 듯이 매달렸으며 더욱더 합격이 간절해졌다.

시험 날, 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래, 합격하지 못한다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3여 년의 노력을 100분에 쏟아부었다. 시험이 끝나고 나니 날아갈 듯 기쁠 줄 알았는데 허무했다. 시원섭섭함을 넘어서는 허무함에 채점도 하지 않은 채 일주일이 지나갔고 점수를 확인하고 ‘아! 이번에도 합격은 못 하겠구나’ 하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책을 열었고 필기 합격자 발표일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본 내 수험번호 옆에 합격이란 두 글자가 내 눈을 의심하게 했다.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렵게 출제되었고 그 덕에 나는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격이란 두 글자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믿어지지 않아서 몇 번이고 보고 다시 또 보고를 반복했다. 너무 기뻐서 웃음도 나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다.

그러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산이 있었으니 면접! 거울을 보니 80kg을 넘어가는 누가 봐도 자기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물론 면접이 외모를 보진 않지만 면접이란 산을 넘어야 했던 난 작은 것 하나라도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면접 복장도 정장 치마라서 더더욱이 신경 쓰였다.

면접 공부야 하면 되지만 당장 살들이 문제였다. 단기간에 이 살들을 어떻게 뺄단 말인가. 스트레스를 핑계 삼아 마구마구 먹던 지난날

의 내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원망할 시간조차 없었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일절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방울토마토만 먹으며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운동했다. 단언컨대 공부하는 것보다 살을 빼는 게 어찌면 더 힘들지도 모르겠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당장 쓰러질 것 같았고 머리가 빙글빙글 어지러웠다. 매 순간순간 음식들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약으로 깡으로 참고 또 참았다. 그런 노력으로 다행히 어느 정도 맞는 사이즈의 정장 치마를 입을 수 있게 되었고 떨리는 면접이 순식간에 그렇게 지나갔다. 흥가분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간에 나는 죽을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최종 합격자 발표날! 두근두근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모니터를 제대로 볼 수 없어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심호흡을 하며 찾아본 내 수험번호가 최종 합격자 명단에 있었다! 보고 또 봐도 몇 번을 다시 확인해도 꿈이 아니었다. 그렇게 나는 내 나이 마흔한 살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된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기뻐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그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누가 뭐래도 가족이었다. 집으로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번호를 눌렀다. 얼마 뒤 수화기를 타고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나는 울음 섞인 목소리를 진정시키고 한참 만에 공무원 합격 소식을 전했다.

“내 손에 장을 지져야겠네! 잘했다.”

아버지의 잘했다 한마디에 나는 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나 이 마흔을 바라보는 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취직도 하지 않고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기에 부모님의 속은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동안 모질게 대했던 것도 다 강하게 키우기 위한 부모님 나름의 방식이었음을 이제는 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나를 걱정하고 내가 잘되기를 바랐을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었다.

새로움은 설렘이다. 지금의 난 새로움이 새롭다.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모든 날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새롭다.

누구는 말할 것이다. 공무원 그게 뭐라고! 3년이나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냐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공무원 그게 나에겐 뭐였다. 나에겐 새로움이였다. 노력하면 이를 수 있다는 기대였고 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힘이자 기회였다.

요즘 다들 힘들다. 특히 취업난에 젊은 20~30대들이 너무나 힘들어한다. 그런데 감히 나는 말한다. 노력하면 할 수 있고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 그대들의 꿈을 위해 힘들겠지만 오늘도 노력해 보라고. 나 같은 40대도 했으니 그대들은 그대들이 원하는 것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언제나 젊음은 그대들의 가장 강한 무기이기에!

지금은 하루하루 새로운 일을 배우며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 중이다. 더불어 건강함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지금까지도 나의 다이어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건강한 식사를 하며 운동 위주로 다이어트를 한 결과 앞자리 숫자가 8에서 6으로 바뀌며 나는 거의 20kg 가까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환골탈태를 한 것이다.

인생은 60부터라고 누가 그러던데 나는 아직 40대이니 내 나이 60이 되면 얼마나 즐거울지 벌써 기대된다. 60대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나는 또 노력하며 이 새로움을 실컷 만끽하리라!

2025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우수상

## 다시, 봄

임영숙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명천로

지 난 2013년 눈 녹는 소리가 졸졸졸 저 멀리 오고 있는 봄을 맞으러 갑니다. 강화도에서 군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아들도 봄길을 따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맺혔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내는 달밤이 따듯한 등을 내줍니다.

미처 떠나지 못한 겨울 끝자락이 유리 창문을 달그락달그락 노크하는 소리에 새벽녘이 돼서야 까무룩 졸던 잠도 달아나 버립니다. 재회로 감격했던 기쁨도 잠시 아들은 대학 대신 취직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입니다. 아쉬움이 남는 난 무턱대고 상경하겠다는 아들을 설득하려다 믿어 보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꿈을 키워 보겠다는 아들을 든든하게 지지하는 편이 되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느낌은 다르지만 이별의 여운은 기차를 타고

떨어졌습니다. 꽃샘추위가 맹렬했던 그날 훌가분한 아들을 바라보던 나는 가슴이 시렸습니다. 나날이 따뜻해지는 별이 파릇파릇 새순을 밀어 올리는 포근한 바람을 타고 온 그리움이 사뭇 했습니다.

떠날 때의 당찬 포부가 흔들리지 않고 일에 임하고 있는지 아들 소식이 부쩍 궁금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받지 않는 겁니다. 별안간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스치는 겁니다. 마음을 다잡은 다음 몇 번의 시도 끝에 아들과 연결이 됐습니다.

“아들 잘 지냈어? 일은 할 만하니? 분위기는 어때?”

“그냥 그렇지 뭐. 일이 많아서 그런지 많이 피곤하네.”

귀찮다는 듯 짧게 대답하는 아들은 말수도 예전보다 부쩍 줄었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는 ‘그렇겠지.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데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 마치 경험이 없던 것처럼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생각했습니다. 적응하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앞으로는 아들을 재촉하지 말기로 하니 나도 편안해지는 겁니다. 사회생활이 처음인데 분명 어려움도 컸을 테지만, 엄마가 어떤 심정으로 힘들게 자신들을 키웠는지 아는 아들로서는 나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또한 친구들은 대학교로 갈 때 전자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산골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농사일에 파묻혀 늙어가는 부모님께 보탬이 돼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계절이 바뀌어도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 부모님과 여행하는 소박한 꿈을 꾸면서 3교대 근무가 힘든 줄도 모르고 매달 받던 18만 원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저축하는 즐거움이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는 아들을 다그치지 않게 됐습니다. 데칼코마니처럼 닳은 우리 모자의 인생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항상 기숙사 언니, 동생들과 정을 쌓는 즐거움으로 들뜬 마음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종종 기숙사 뒤뜰 벤치에 앉아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의 수채화를 보면서 숙녀들의 부푼 가슴이 꽃봉오리처럼 벌렁거렸어요. 방장 언니 기타 반주에 맞춰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차가운 네 눈길에 얼어붙은 내 발자국~ 돌아서는 나에게 사랑한단 말 대신에~ 안녕~ 안녕...” 떼창을 부르면 어느새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수많은 숙녀가 한데 어우러지는 진풍경…

직장 생활이 무르익던 어느 날 낯선 사람으로부터 하얀 우유 배달이 왔습니다. 다음날도 그다음 날도 마치 태엽 시계 알림처럼 교대 시간에 맞춰 기숙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남자. 키도 작고 왜소해 전혀 내가 원하는 타입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거기다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나도 데면데면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요한 그 남자의 행동을 나는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무언에 홀린 것처럼 달했던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풀렸던 날 순진한 저는 순결을 잃었어요. 한 방에 임신이 됐고 꿈꿨던 직장도 떠나게 됐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방을 구할 생각도 없는 남자가 답답해 눈물을 머금고 만기를 앞둔 적금 깨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3평 남짓한 반지하방을 얻어 빈곤한 살림을 차렸습니다. 알전구 하나에 의지했던 칙칙하고 어두운 북향 지하방엔 겉로로 벽에는 물방울이 이슬처럼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뒤따라온 곰팡이는 영역을 넓혀가며 썩은 꽃을 피우는데 마치 막다른 절벽에서 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긴 가면 속 남자는 냉랭했습니다. 특히면 친구와 술 먹는다고 늦고 남자들은 그럴 수 있다며 외박과 외도로

나를 작정하고 괴롭혔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도 그는 옆에 없었고 산후우울증이 극심했을 때도 밥상을 얹었고 나를 때렸습니다.

밤새 울면서 곰곰이 그의 행동을 그제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뒷받침해 줄 누군가로 내가 지목됐던 게로구나 싶은 거예요. 순진했던 나는 너무 단순하게 사랑이구나 착각해서 벌어진 구렁텅이….

멍청한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소중한 선물, 딸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힘을 내서 살아야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변변한 것 없는 살림살이는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나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매일 저울질을 했습니다. 튼튼한 동아줄에 매달려 야기 분웁값이라도 벌려고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피폐해지는 생활고에 심하게 흔들렸을 때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또다시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운명이라고 두 손을 붙끈 움켜쥐었어요. 시린 손을 연탄불 열기로 녹여가며 전선을 감고 알밤 껍질을 까는 부업으로 운명처럼 나를 뒤덮은 고뇌를 겹겹이 벗겨 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활짝 웃는 딸을 보면서 네가 꽃이로구나! 해맑은 저 태양을 두고 어떻게 나쁜 마음을 먹는단 말인가? 꿈틀거리는 태동의 신호는 잘살아보라는 신의 은총이라는 것을 마음 깊숙이 뿌리 박고 견뎌낸 것은 지금 보면 무척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태어난 것은 고단한 시집살이의 방패였습니다.

부족한 부모를 만난 탓일까요? 건강하게 자란 둘째 아들인 그만 대중목욕탕에서 심하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얼라 안 보고 뭐 했냐?”며 아픈 곳을 또 맞았습니다. 심하게 다쳤던 아들도 태교 때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단단히 버텨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익히고 태

어나서 그런지 아들은 신기할 정도로 울지도 보채지도 않고 통증을 잘 견디는 거예요. 엄마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어린 아들도 알았나 봅니다. 아기가 의젓한데 저는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아들을 지켜보는 내가 얼마나 더 아파야 눈물이 마를까 흐느끼는 어깨를 툭툭 치면서 “엄마 괜찮아요” 입을 떼 딸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눈물을 닦아 주는데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신게 감사했습니다.

“보잘것없고 심신 미약한 나에게 착하고 예쁜 딸과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내가 더 바빠야 자식들에게 쏘리는 집착을 내려놓겠다 싶어 식당에 취직했어요.

햇살이 몽근하게 피던 날 기다렸던 아들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아들 오랜만이야! 어떻게 이 시간에 전화했니? 오늘 휴무야?”

오랜만에 통화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호들갑 떨며 내가 속사포처럼 묻는 말에 대답 대신 침묵이 흐르는 겁니다. 흐름이 끊긴 잠시 뒤 입을 떼 아들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엄마 나 다쳤어” 하는 겁니다. 순간 눈앞이 또 깜깜해졌습니다.

“어디를 얼마나? 많이 다쳤니? 어찌다가?”

아들이 다쳤다는 말에 심장이 팍콘처럼 쿵닥거리 이리다 숨이 멎겠구나 싶었어요. 튀김 솥을 청소하던 중 피로감에 현기증이 있었고, 그 순간 팔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팔이 뜨거운 기름 솥에 빠진 사고랍니다. 재빠르게 흐르는 물에 화상 부위를 식혔는데도 결국 2도 화상을 입었다고 기억을 더듬는 아들의 말끝이 흐렸습니다. 화상 전문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았으니 괜찮겠지 말하는 목소리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어쩐지 이대로는 못 견디겠기에 사장님께 사정 얘기를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사장님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 비슷하지 않으냐며 그 맘 알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어서 다녀오라며 며칠 휴가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12시간씩 죽은 듯이 일만 했던 나의 빈자리를 채우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나는 죄송함이 컸습니다.

어쨌거나 손자 일이라면 끔찍하셨던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첫 나들길이자 첫 기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물론 서울도 처음입니다.

옛날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 공장에 취직했던 초심이 새록새록 봄나물처럼 깨어났습니다. 어쩌다 보니 불효녀가 되었고 계획된 모든 일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늘 아쉬웠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또 소환됐습니다. 불행하게도 기뻐해서는 안 되는 목전에서 여행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핑그린다고 이미 벌어진 사고가 원상회복되는 것도 아니잖니? 자식새끼들 키우느라 등이 흰 어머니를 더 이상 슬프게 하지 말자’ 불끈하고 솟구치는 마음을 토닥이는 창밖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아들을 손자를 걱정하는 진심은 둘 다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가랑잎처럼 비쩍 말라 그동안의 생활이 얼마나 고단했었는지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꼭꼭 숨겼던 싹짓돈으로 어머니는 손자의 구겨진 아픔을 따뜻하게 보살펴 말갭게 끌어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아들은 남살대는 웃음이 무지개처럼 은은하게 피어났답니다.

2주간의 치료 기간을 우리는 여행 중이라고 생각하니 시름이 싹 날아갔어요. 여느 나들이객들처럼 우리도 김밥과 과일을 챙겨 마음이 확 틈는 한강 공원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처음 타보는 복잡한 지하철도 우리 모녀에게 위협이 되지 못했어요. 여든의 어머니도 생의 첫 자전거 타기에 당당히 도전했습니다. 손자가 빌려온 2인용 자전거에 너

끈히 올라왔을 할머니를 태우고 한때 ‘망부’를 못 잊어 우울증에 갇혀 지내셨던 그때를 떠올리며 크게 외치는 겁니다.

“할아버지 만나러 하늘 끝까지 달려갑니다.”

덤으로 할머니 애창곡 ‘짚레꽃’과 ‘봉선화 연정’을 목이 터지라 불렀 습니다. 저는 이대로 우리를 안개처럼 휘감은 비애가 사라지기를 빌었 습니다.

평소 아들을 눈여겨 봐왔던 선배의 조언으로 배달 음식 전문점 매 니저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직을 종용했고, 새 직장에서도 아들의 성 실함으로 신망도 두텁게 쌓였더랬지요.

희미하게 다가오던 업주들의 과욕을 눈치챘을 때 아들은 이미 14시 간 이상이라는 초과 노동에 엎매였을 때였었는데요. 저들은 가난한 청춘을 악용해 노예처럼 부렸던 것입니다. ‘힘들다’라고 외쳐 보지도 못하고 아들 심신이 점점 미약해지기 시작하는 늙지대는 아들을 물 고 늘어졌던 겁니다. 아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설움이 괴어 토약질을 합니다. 토닥여줄 빈 공간도 없습니다. 결국 세상과 단절하는 ‘히키코 모리’ 은둔 청년이 된 겁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희미했어요. 우리 각자 바쁘게 사느라 아플 거란 짐작도 하지 못했는데요. 단절된 시간이 마 음의 거리도 멀게 했나 봅니다. 통화하는 내내 어색한 기류가 수화기 너머에서도 잔잔히 일렁였습니다.

“엄마, 나 집으로 가도 돼요.”

어렵게 꺼내는 말을 나는 “엄마 살려줘”라고 들었던 것 같았어요.

“힘들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집으로 내려오렴.”

말은 했지만 길게 내뿜던 아들의 한숨 소리가 어쩐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을 만나기 전까지 함부로 속단하긴

이르다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꿈에 부풀어 상경하던 설렘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무심한 세월은 너무 빨랐어요.

패잔병이 된 아들의 낙향은 2021년 코로나 시국이 한참이던 여름 장맛비에 흠뻑 젖은 생쥐 꼴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선명한 아들은 곧장 쓰러지듯 잠 속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아들은 세상과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픈 것도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은 초등학교 다니는 암전한 아들을 그 남자는 '사내답지 못하다'며 때렸고 '부족한 실력은 다 네가 못나서 그렇지'라며 회초리로 성장기 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더랬지요. 종족 본능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무능함까지 아들에게 덮어씌우고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해맑은 영혼을 훼손하는 악행은 한마디로 횡포였던 거죠.

가장으로 살던 나는 돈에 매달려 외로운 늪으로 아이들을 처박고 방임했어요. 따뜻한 품이 그리워 보채는 아이들을 끌랑 백 원짜리 문방구 과자 던져주면서 "지금 엄마 바쁘니까 너희들끼리 놀면 안 되겠니?" 했죠. 그땐 동심을 파괴하는 줄도 몰라서 짓밟았다는 늦은 후회가 밀려와 씩씩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되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식을 저는 언어로 폭행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며칠 만에 입을 뗐습니다.

“엄마, 나 살기 싫어.”

“안된다, 안돼. 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공포,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불안에 떠는 아들을 꼭 끌어안고 끌어오르는 울분을 참는 몸이 사시나무같이 떨려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였던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들 방을 지켰습니다. 새벽 동이 트는 것을 보면서 안심하고 쏟아지는 잠을 눈꺼풀이 견디지 못해 깜빡 졸았던 것 같아요. 눈 뜨고 보니 이미 날이 밝았습니다.

“아들, 일어나야지.”

방문을 열었을 때 방안이 텅 비었더라고요. 불안에 떨면서 아들을 찾았지만 집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처 피시방이나 커피숍에 갔겠거니 생각하며 흘러간 시간이 한 달이 됐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매일 보낸 수십 통의 문자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꼭꼭 숨어버렸구나. 무능한 부모로부터 받았던 수모를 이런 식으로 양갈음하겠다는 목적으로 돌아왔었나?’ 별어지지도 않은 비상식적인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나 자신도 위로받고 싶었나 봅니다. 알팍한 속임수로 속매 같은 아들을 농락하며 키운 잘못이 나 자신도 버거웠는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푸르게 빛나던 5월 가정의 달이라고 서로를 챙기며 사랑을 주고받는 세상이 저는 야속했습니다. 결국 꼭꼭 눌러 참았던 실종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천근만근입니다. 한여름 더위가 나를 말려 죽일 기세로 끓어올랐습니다. 오춘기라는 갱년기가 우울과 불안, 짜증과 열감, 관절통과 두통, 혈압 상승으로 가슴이 벌렁거리고 건조증으로 쪼그라드는 통증으로 잠도 못 자고 어지러워 나뭇가지처럼 말라가는데 낙이 없어지더라고요. 경찰서에서는 오히려 아들 연락이 없었느냐? 매일 확인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어떤 날은 그것도 싫은 겁니다. 괜히 신고했구나, 후회도 했어요. 그들도 우리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급기야 아들의 시름 속에 녹아드는 기분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딘가에 살아있음이 분명하다고 믿게 된 것은 뉴스였습니다. 매일 사건 사고를 전달해 주는 매체가 내 아들의 소식으로부터 조용하다는 것은 곧 아들이 안전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더니 조금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름이 깊어지고 녹음이 짙어가는 7월 마지막 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죽겠다고 덤볐더니 오히려 허무하게 살아지더라며 “미안해요, 엄마” 그 한마디면 됐다 싶어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데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잘 돌아와 줘 고맙다” 안아줬습니다.

아들의 방황은 끝나지 않았지만 다행인 것은 도시락 배달과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견뎌내는 노력에 박수를 쳤습니다. 다시 재기하겠다는 의욕으로 병원을 찾아 살아보겠다는 의지에 불을 지피던 고마움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이프가드’ 자격증에 도전했다는 사실이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쌓은 수영 실력을 기반으로 당당히 무언가를 향해 뺨어가는 아들의 포부에 감동의 물결이 일렁거립니다.

첫 번째 도전에 실패했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부족한 실력을 다지려고 도전장을 던지는 끈기를 보면서 이제야 아들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우리에게도 고생 끝에 낙이라고 웃는 날이 오는구나 기뻐어요.

의욕이 오락가락할 때 숨 고르기로 스스로를 빛나게 했던 아들이 지난해 ‘라이프가드’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얼싸안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유리창 가득 비치는 햇살이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내준 밝은 햇살이 스며드는 따뜻한 방안이 오랜 만에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바로 수영장 ‘안전요원’으

로 냉큼 오시라 명받았거든요. 행복이 한꺼번에 포도송이처럼 맺힙니다. 다시 또 이별한다니 아쉽지만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당당히 대한민국 태극기가 가슴에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새로운 직업을 응원합니다. 널리 자랑하고 싶어 조심스럽게 이 글을 씁니다.

고통과 고난도 한때는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그 역경들의 디딤돌이 아니었더라면 오르지 못했을 것 같은 안개가 사라진 맑은 날이 바로 지금입니다. 속마음을 터놓고 사랑한다는 고백도 잊지 않는 아들의 목소리에 미소가 가득 피어오릅니다. 애꿎던 날들이 뚝뚝뚝 사라집니다. 백일홍처럼 오랫동안 지지 않는 꽃이 집안 가득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움을 찾아 수평선처럼 고요한 잠에 들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이 주는 기쁨과 도전하는 아름다움으로 실패와 좌절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아들의 꿈을 응원하는 우리는 다시 봄을 맞이했습니다.

소중한 지금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신춘편지쇼에 글을 보냅니다. 힘이 되어 주는 여성시대 늘 감사합니다.

PS. 아들이, 아픈 날들을 허락 없이 끄집어내서 미안해! 그리고 엄마를 사랑해 줘서 고마워! 엄마는 너희들한테 비록 용돈 한 번 쥐 본 적 없고 새 옷 사 입힐 여력도 못 되어 이웃들로부터 물려받은 헌 옷으로 키웠지만, 단 한순간도 너희들을 사랑 없이 키운 적도 없었고 멀리한 적은 더더욱 없었던다. 단지 노곤한 삶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너희들도 곧 이해할 날이 올 거라 믿어. 늘 사랑하고 힘이 되어 줘서 고맙다. 우리 힘내서 기운차게 다시 맞은 봄 잘살아보자.

2025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가작

## 다시 함께하는 그날

이창현 | 경북 경주시 와산2길

한 때 우린 서로의 모든 걸 숨김없이 터놓고 함께한 절친한 사이였다. 늘 편하게 서로의 이름을 불러대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 만나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렇게 우린 서로의 웃음과 눈물을 공유하며 인생을 함께 살아왔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뜻밖의 부탁을 받게 됐다.

“나, 이번에 대박 날 사업을 하나 준비 중인데 좀 도와줄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나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꿈을 믿었고 그가 얼마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실패할 거라곤 단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결국 나는 큰 고민 없이 돈을 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래, 얼마든지. 난 네가 잘될 거라고 믿어. 내가 도울 수 있어서 기

쁘다.”

하지만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치 못했다. 나는 그 친구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줬었다. 그러곤 꽤 긴 시간이 흘렀다. 솔직히 처음부터 사업이 잘되어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친구는 항상 내게 낙관적인 말을 건넸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모든 게 다 잘될 거야. 늘 믿어줘서 고마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업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친구는 점점 더 자주 나의 연락을 피하는 듯했다. 여러 번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도 그는 답이 없었다. 결국 점점 불안해져 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내게 한 통의 전화를 걸어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업을 망쳤어. 그리고 너에게 빌린 돈도 갚을 수 없을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한기가 ‘훅~’ 하고 올라오음을 느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이랄까. 나도 모르는 사이 뜨거운 눈물 한줄기가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알게 됐다. 그는 내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신뢰를 빌린 것이며 그 신의마저도 이제 모두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는 것을….

이후 친구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겨 버렸다. 몇 번의 연락 시도와 간절한 음성메시지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가 진정 사라졌다는 걸 실감했다.

결국 돈도 잃고 친구도 잃어버린 내! 과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내가 믿어왔던 삶의 가치 모두가 다 흔들리는 것만 같았다. 결과적으로 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됐지만, 그로 인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다. 사람과의 인연은 결코 물질적인 것으로 오

래 유지되지 않는단 사실이었다. 어쩌면 그 친구는 그동안 우정이란 이름의 신뢰를 물질적인 수단으로 모두 치환해 받아낸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연을 오래도록 지탱해 주는 힘은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이 아닐까 싶다. 진정 멋진 인연이란 돈이나 명예와는 상관없이 서로의 마음이 쉬이 닫히지 않게끔 늘 노력하는 과정들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관계가 아닐는지. 이젠 그 친구에게서 배운 교훈이 내 삶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만 같다.

그 친구를 처음 알게 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다. 우린 절친한 고교 동창생! 힘든 사춘기 시절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함께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며 쌓아온 끈끈한 우정의 시간... 우린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진학해 청춘의 봄날마저 함께 누렸었다. 그 친구가 늘 곁에 있었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고 항상 든든했었다. 아마도 그 친구에게 나란 존재도 그러했으리라.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한 뒤 그가 나보다 먼저 결혼했다. 서로를 살뜰히 챙겼던 우린 서로의 행복한 앞날을 간절한 맘으로 빌어줬었다. 그랬기에 먼저 결혼한 그가 야심 차게 직장을 나와 개인 사업을 한다기에 거리낌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 진정 그가 잘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말이다. 그런데 그게 결국 오랜 우정의 파국을 맞게 할 줄이야!

사실 친구에게 빌려준 그 돈은 내 결혼자금이자 당시로선 나의 모든 것이었다. 먼저 결혼한 그 친구는 4살 난 아들을 두게 됐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던 터였기에 그 친구 또한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를 약속한 나의 반쪽을 위해 그동안 모아둔 결혼자금이 한순간 사라져 버린 나 또한 너무도 막막하고 힘

들었던 시간이었다. 결국 나를 피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에 찾아가기로 맘먹었다. 일단은 돈보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었던 게다.

결국 난 집으로 찾아갔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빛 받으러 찾아왔으면 그럴까? 4살 난 아들이 나를 보자 경기하듯 놀라며 엄마 뒤에 급히 숨어 버리는 게 아닌가. 집안엔 TV에서나 봤던 빨간 압류 딱지가 더덕더덕 붙은 가구들로 가득했다. 거기다 철이 지난 얇은 옷을 입고서 난방도 되지 않는 추운 거실에서 떨고 있는 모자가 너무도 딱해 보였다. 거기다 대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친구가 결혼해 집들이할 때 행복을 빌어주러 갔었고 아들이 태어났을 땐 함께 기뻐해 준 나였던 지라 그들의 지금 모습이 더욱더 가슴 아프게 다가올 뿐이었다. 결국 친구 아내는 소리 내어 평평 울기 시작했다. 남편의 절친한 친구 앞에서 지금 초라한 자기 모습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음에 터져 나온 한탄의 눈물이었으리라. 그대로 마주 앉아 있기에 뭐해서 잠시 자리를 피해 베란다로 갔었다. 그런데 거기서 난 결국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말았다. 그리곤 잠시 생각에 잠겼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아이 손에 10만 원을 쥐여주며 “나중에 맞난 거 사 먹거라” 말했다. 사실 어려운 형편에 보태길 바라며 아이에게 대신 전해준 내 마음의 표시였다.

허탈한 마음으로 나와 거리를 마냥 걸었다. 어찌면 이 근처 어디에서 친구가 숨어서 날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단 생각이 들었다. 베란다에서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담배 연기의 잔흔과 재떨이 속 새 담배꽂초가 잠시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친구가 있었던 걸 짐작하게 해줬기 때문이었다.

당시 친구에게 빌려줬던 돈은 오천만 원이었다. 내 모든 노력의 결

정체였고 사랑하는 약혼자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종자돈이었다. 2000년대 초 무렵 오천만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런 돈을 믿었던 친구에게 떼이고 나서도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당시 내 심정을 그 누가 알까? 결국 그로 인해 사랑한 약혼자에게 5년이란 시간을 더 기다려 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애원을 눈물로써 받아주던 그녀를 껴안고서 펄펄 울었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기만 하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나에게 있어 참으로 뼈를 깎는 듯이 괴롭고 아프고 고달픈 순간들이었다.

그러던 중에도 가끔 그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다. 처음엔 나도 사람 인지라 그 친구가 너무도 밋고 증오스럽기까지 했었다. 그러다 다시 든 생각은 안타까움과 측은함이었다. 그 친구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애처로웠던 상황을 난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는 내게 사과의 말을 남기며 끝내 눈물을 보였었다. 나 또한 그런 그가 안타까워 두 손을 부여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함께 흘렸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끝으로 그는 다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허탈한 마음을 안고서 집 쪽으로 걸어가는데 대문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닌가. 분명 사람의 형체 그것도 그 친구의 모습 같았다. 나는 발걸음을 빠르게 재촉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와 동시에 더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가는 그림자. 나는 다급한 맘에 그 친구 이름을 크게 불러댔다.

“인철아! 인철이 맞지?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줘.”

하지만 그 형체는 더욱더 빠른 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설마 내가 돈 값으라고 할까 봐서 도망쳐 버린 것일까? 왜 내 집을 찾아온 걸까? 미안한 마음에서일까 아님 일말의 양심 때문에 괴로워서 일까? 수많은 질문을 뒤로하고서 그는 짙은 어둠 저편으로 사라져 버

리고 말았다.

‘바보같이 도망은 왜 가냐? 도대체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돼 버린 거니?’

결혼자금으로 모아뒀던 돈을 모두 빌려준 탓에 사랑하는 지금의 아내를 약속한 기한을 넘겨 7년을 기다리게 한 후에야 우린 겨우 결혼할 수 있었다.

그동안 내가 겪었을 마음고생이 또한 오죽했으랴! 그런데도 그런 시간이 전혀 헛되지 않았음을 뒤늦게야 깨닫게 됐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진정 철들게 했고 더 지혜롭게 만들어 준 과정이 아니었으나 싶다. 이제 나는 인연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아끼고 지지해 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즉 그 마음의 깊이가 제일 중요한 것임을 알았다. 결국 그 깊이가 참다운 인연을 오래도록 지탱해 주는 든든한 뿌리가 돼주는 것이리라.

‘함께’라는 단어 속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리고 좋은 때와 힘든 때도 같이 하겠단 의미가 담겨 있으리라. 나 역시 그 친구와 함께해 행복했었고 또 때론 불행하기도 했었다. 이젠 그 모든 기억마저 소중한 추억으로 같이 간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기 위해선 꼭 한 번은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걸 용서할 수 있게 된 지금에서야 난, 그 친구에게 꼭 하고픈 말을 봄바람에 실어 띄워 본다.

“친구야! 언제든 괜찮으니 꼭 연락해 줘. 보고 싶다, 친구야!”

어느새 촉촉이 젖은 두 눈으로 서쪽 먼 하늘을 바라다본다. 다시 함께하는 그날이 오면 괜찮다고 이젠 다 지난 일이라고 말해주며 친구를 힘주어 꼭 안아주고만 싶다. 저 멀리 붉게 물든 저녁놀 너머로 낮익은 얼굴 하나가 나를 바라보며 ‘씨익~’ 씩스럽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너 사무실에 있니?”  
 나는 느닷없이 질문부터 불쑥 던지는 귀에 익은 음성에 당황해서 내 머리카락 색깔에 맞춘 새치 염색약을 들고 성큼성큼 다가오는 미용실 직원에게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했다. 시어머니의 음성이었다.

“어머니? 어디세요, 지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네 사무실이 어디냐? 난 지금 사거리 농협 앞인데.”

“네? 아! 저 지금 염색하러 미용실에 와 있는데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래? 그럼 미수라도 보고 가던가.”

당신을 썩 반가워하지 않는 듯한 내 목소리에 실망한 듯 어머니의 음성이 힘이 빠지며 맥없이 작아졌다. 나는 괜히 미안해진다. 사실 새

로운 사업장을 오픈한 지 넉 달이나 지난 이 시점에 아무 기별도 없이 불쑥 찾아오신 어머니가 반갑기보다는 당황스러웠다. 내 사업장을 보러 오셨다는 어머니를 미용실로 오게 할 수도 없고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곤히 자고 있을 딸을 불러내기도 난처한 상황이었다. 사정을 설명해도 짜증부터 낼 철없는 딸아이의 음성이 벌써 귀에 들리는 것 같아 머리가 복잡해졌다.

“바쁘면 그냥 가지. 뭐.”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는 떠쑥해져서 괜히 머리를 긁적인다. 순간 어머니가 나와 함께한 삼십 년 가까운 세월에 이렇게 불쑥 찾아오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깨닫는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은... 그냥 와 봤지.”

얼머무리는 어머니의 음성에 물기가 느껴졌다.

“어머니, 거기 조금만 계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추우니까 어디 복도에라도 들어가서... 네? 어머니?”

이렇다 할 대답도 없이 신호가 끊긴다. 나는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져 생각을 정리할 새도 없이 옷을 챙겨 급히 밖으로 나왔다.

“언니, 염색약 다 섞어놨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해?”

직원의 짜증 섞인 음성이 등 뒤로 짜랑짜랑 울렸다.

“이따 다시 와 계산해 드릴게요. 미안!”

급하게 시동을 걸고 어머니가 계신다는 근처로 차를 몰았다. 5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가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우리 미수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도 못 보고 가서 미안하다. 그리고 며느리, 고맙다!”

어머니는 지금 스물다섯이 된 내 딸아이가 일곱 살 되던 해 지금의 아버님과 재혼하셨다. 육십의 나이에 어머니는 새 신부가 되신 거다. 당시 어머니보다 열 살이 많으셨던 아버님은 등산동호회에서 만나게 된 어머니와의 결혼을 승낙받으러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며느리’인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 집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먼저 얘기를 전해야 한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네.”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는 인상이 순하고 다정한 눈빛을 가진 분이셨다. 어머니는 내 남편이 일곱 살 되던 해 아버님과 사별하고 혼자 두 남매를 키워오셨다. 시어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키도 옛날 분 같지 않게 훌쩍 크고 인물도 빼어나신 데다 성격도 좋으셨다. 요리 실력도 출중하셔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자칭타칭 ‘동네 인싸’이셨다. 따라다니는 아저씨들도 줄을 설 정도였다.

평소 얌전하고 말수가 적으신 분이셨지만 제사 음식이나 차례 음식을 장만할 때면 나와 어머니는 수다쟁이 동갑 친구처럼 어머니의 남자친구 얘기까지 할 정도로 속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때는 결혼한 어머니의 딸, 아이들의 고모와는 일절 나누지 않는 얘기를 나에게서는 술술 털어놓으시는 어머니가 조금 의아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 나도 엄마가 되어 생각해 보니 아무리 ‘사별’을 하셨다 해도 친아버지가 아닌 남자친구의 얘기를 ‘엄마인 사람’이 ‘딸’과 나누긴 어려울 것 같긴 하다.

“어머니, 그 장 씨? 그 아저씨는 요즘도 계속 전화하세요?”

“맨날 ‘한 건만, 한 건만’ 하면서 한방 터뜨리면 청혼한다. 말로만 집을 몇 채 사줬네. 허풍쟁이 같아.”

“어머니, 당연히 풍족하신 분이면 좋긴 하겠지만 뭐 어디 팔려 가서

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어머니를 마음 편하게 해주실 분 만나시면 좋겠어요.”

진심이었다. 어머니는 자영업을 하며 늘 불안정한 자기 아들을 보며 당신까지 짐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하며 입버릇처럼 풍족한 사람 만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다. 그러나 나는 ‘풍족한 사람이기만 한 사람’ 말고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분을 만나셔서 더 이상 외롭지 않으셨으면 했다.

15년을 키운 강아지를 떠나보낸 날 혼자 거실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 계시던 어머니. 내 눈에는 어머니가 친구들 다 떠난 놀이터에서 갈데 없어 혼자 앉아 있는 어린 여자아이 같아 보였다. 그래서 이후로도 늘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어머니의 아들인 남편의 생각은 나와 달라 보였다.

“엄마는 이제 엄마로서의 인생만 살면 안 되나? 왜 저 나이에 굳이 남자를 만나려고 하시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자칫하면 다시 삶의 새로운 짐을 질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남편의 심정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남편은 앞으로 어머니의 새로운 만남을 계속 반대만 하며 ‘어머니의 세월’을 속절없이 흘러보낼 것만 같았다. 그래서 속 깊은 어머니는 저런 남편을 설득해 달라고 나에게 아버님을 모셔와 도움을 청했던 걸까?

“아! 건이 아빠! 그건 아니지. 엄마도 여자잖아. 여자로서의 삶도 있는 거지. 자식들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야.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 봐. 좋은 분 같아.”

나는 지금의 아버님의 진중한 태도와 어머니에게 해주겠다는 풍족한 노후에 대한 약속에 신뢰가 갔다. 그래서 어머니의 재혼을 마냥 서

운한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설득할 수 있었다.

결국 어머니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맞이하셨고 아버님은 18년 채 그 약속을 지켜주고 계신다. 나는 어머니를 좋은 분께 보냈다는 자부심마저 가졌고 남편도 어머니가 한결 편안해 보이신다고 흡족해했다.

“나는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청천벽력과 같았다. 게다가 어머니의 울음 섞인 음성!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그 오랜 세월 동안 평안하게만 보이던 두 분이셨는데 늘 건강하기만 하셨던 어머니의 암 선고 소식 이후 최고로 충격적인 얘기였다. 60세에 새 신부가 되어 꽃처럼 웃던 어머니가 팔십을 내일모레 앞두고 아버님과 헤어지고 싶다고 시골집을 알아봐 달라고 하신다.

나는 어머니의 차가운 두 손을 끌어당겨 내 두 손으로 비볐다. 평소 어머니께 맡은 살갑게 하는 나였지만 태생이 무뚝뚝한 경상도라 스킨십은 없던 지라 갑작스러운 내 행동에 어머니는 조금 당황하신 듯 축스러워하며 손을 쏙 빼내셨다. 나도 축스러워져 잠시 정적이 흐른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나를 잠시 외면하더니 어머니는 손수건을 꺼 내 눈물을 닦으셨다.

“나는 이제 저 사람이랑 안 살고 싶어서…!”

“왜요?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네. 십수 년을 삼시 세끼 수발, 전 부인 제사 음식까지 거거다 찾아오는 본인 자식들 손주들 수발까지…!”

채 말을 끝맺지도 못하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신다.

“아버님이요? 아이고 왜 그러셨을까?”

“자식들이 명절에 와서 식사하는 중에 음식들 더 챙기러 며느리들이 일어나면 며느리들을 앉아 있으라 하고 나한테 일어나 가져오라고 하신다. 그게 뭐니? 식모를 둔 것처럼. 애들 보기도 민망해서.”

어머니는 당신의 서운함을 표현했다. 위로나 변명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역정을 내시는 아버님께 큰 상처를 입으신 듯했다. 그 오랜 세월을 해마다 보내오면서도 어머니에게 아버님에 대한 서운함이나 원망은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그래. 부부 사이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신혼을 보내는 젊은 부부든 대화를 잇고 그냥 살아가기에 급급한 바쁜 중년의 부부든 또 어머니와 아버님처럼 잠시 설레고 새로웠던 재혼의 그날 그 기억은 잊은 채 무덤덤한 여느 부부의 모습을 한 두 사람의 속내를.

나는 아버님께 몰래 전화를 했다. 아버님은 역정을 내신 순간을 후회하고 계셨고 어머니에게 계속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계신 듯 어머니의 전화기에는 아버님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번 떠 있었다.

“어머니, 그냥 오늘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버님도 반성하시게.”

“아니야. 집에는 들어가야지. 아침도 차려 드려야 하고”

어머니는 아버님을 떠날 마음이 없는 것 같았다. 아니면 나처럼 두려운 건지도 모른다.

“어머니, 건이 아빠와는 아무래도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결혼 초부터 사업한답시고 술에 사람들에 외박을 밥 먹듯 하며 가정을 등한시하는 무책임한 남편이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고 해도 아니 더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감히 당신의 아들과 헤어지고 싶다고 시어머니 면전에 대고 이혼을 들먹이는 당돌한 며느리에게 어머니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사정을 왜 모르겠니? 다 안다. 그동안 참고 사느라 애썼다. 네가 내 딸이라면 당장 이혼시켰을 거야. 하지만 나는 건이 할머니잖아. 차라리 마음 맞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한이 있어도 애들한테는 너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면 좋겠구나.”

외로운 며느리에게 말이 통하는 남자친구라도 만나라는 시어머니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을까? 나는 그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는 어머니와 함께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십 년째 각자의 처소에서 소위 ‘졸혼 부부’로 살아가고 있다.

“어머니, 건이 아빠가 이혼 서류를 보내라네요. 본인 때문에 나까지 압류당할 수도 있다고. 애들은 오히려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무서워요. 이혼녀 소리 듣고 사는 거. 어머니, 저 어떡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건이 어미야,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해도 나한테 며느리는 너뿐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생 금방이더라.”

모셔다드리겠다는 나를 한사코 만류하시며 택시에 타는 어머니를 보며 나는 마음이 먹먹해졌다.

“어머니, 저도 세상에 제 시어머니는 어머니 한 분이세요. 어머니, 아버님이랑 헤어지셔도 제가 모실게요. 진심이에요.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억지로 살지 말고 살고 싶은 만큼만 사세요.”

어머니 시집 보내던 날 내가 어머니께 했던 말이었다.

남편과 헤어져 살아도 여전히 저와 함께 힘든 날 저에게 찾아와 함께 울어주시는 어머니께 이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2025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가작

## 또 하나의 나

이춘화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어머니 함께해요.”

한국말이 어눌한 작은 아이가 싱크대 옆에 다가왔다. 흰 손 흰 피부에 해맑은 눈을 가진 아이다. 내가 그릇을 헹궈 주고 아이는 수세미로 깨끗이 문질러준다.

“네 이름이 뭐야?”

“리니예요. 더리니.”

나는 잠깐 멈추었다. 아들이 말하길 리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리니라고 하면 낯설지 않지만 더리니라고 하니, 그래 이 애가 태국 아이이지 느낀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그러니깐 학교에 마지막 시험도 치지 않고 한 금융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덜컥 붙었다. 회사에서는 마지막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되니 일하라고 했다는 거다. 그렇게 회사에 다

니고 또한 짐 싸서 분가하니 한결 좋았다. 2년 후 집에 온 아들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

“연애를 하고 있어요.”

남편과 나는 “언제 보여줄 거야? 같은 회사 애야? 몇 살이야? 어디에 사는 애야?” 묻고 묻고 물어봐도 아들은 희미한 미소만 지었다. 답답해진 우리 부부가 더 캐묻자 아들은 눈을 감아버렸다.

뭔가 마음이 이상했다. ‘이놈이 무슨 사고를 쳤나...’ 한참 동안 고요하게 적막이 흘렀다. 남편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다. 그 김새에 아들이 감았던 눈을 뜬다. 아빠가 없다는 걸 보고는 옅은 미소에 가느다란 목소리로 나를 쳐다보며 아들이 말했다.

“엄마, 내가 연애하고 있는 여친이 태국 애야.”

순간 나는 멈칫했다.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앉았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아들이 나를 쳐다봤다. 난 눈길을 돌렸다. 아들은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좀 전에 내가 말을 꺼낸 여친이 태국 사람이예요.”

아들은 아빠를 쳐다보지 않았다. 침묵이 또 흘렀다. 남편이 말을 꺼냈다.

“얼마나 됐노? 사귄 지 얼마나 되었나 말이다.”

“한 2년 정도 되었어요.”

아들은 흥분하는 아빠의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봤다. 남편은 그 누구보다 보수적이어서 우리 아들이 외국 아이를 사귄다는 건 꿈에도 몰랐던 거고 적지 않게 놀랐다.

“안된다. 결혼 못 시켜준다.”

단호하게 얘기하고 거실에 차려둔 음식을 먹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들이 온다고 해서 아들이 좋아하고 남편도 좋아하는 닭찜을

해냈는데 퐁퐁 붙어있는 당면을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던 아들이 말 없이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아들은 아빠와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아 있었다.

“아빠, 이 애는 피부도 나보다 희고 생긴 것도 한국 사람이랑 다를 게 없어.”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줘도 남편은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난 결혼을 반대한다. 한국에도 젊은 여성들이 많고 많은데 네가 32살인데 뭐가 모자라서 태국 애냐? 학벌이 모자르냐? 생긴 게 모자르냐? 뭐 땀에 태국 여자야?”

나는 귀를 막았다. 같은 여자로서 여자에 대한 비아냥과 태도가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난 입을 열지 않았다. 남편을 너무 잘 알기에 끼어들었다간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들은 힘없이 가방을 메고 나가며 인사를 했다.

“조만간 또 올게요.”

대문 밖을 나서는 아들의 등 위에 ‘엄마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어’ 하는 듯한 아들의 아쉬워함이 얹혀 있었다. 몇 시간 뒤 숙소에 도착한 아들이 톱을 보냈다.

<엄마! 나 그 애랑 헤어질까 봐.>

<그 애를 사랑하는 거야?>

<응.>

<그럼 어째 그리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결혼은 안 될 것 같아서...>

<너는 여자를 우습게 보는 성향이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사랑하고 그 애가 너를 사랑한다면 부모 핑계 대지 말고 밀어붙이는 게 남자의 도리가 아닐까? 부모는 어차피 너희들보다 먼저 죽을 거고 너희들이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말이지. 너희 아빠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해도 흙을 후욱~ 뿌리고 결혼해서 살면 되잖아.>

<그래도 아빠는 나를 엄청나게 사랑했고 기대한 걸 알기에...>

아들이 말을 흐렸다.

<나는 같은 여자로서 너 같이 죽대 없는 남자는 못 믿어서 싫을 것 같다.>

나는 이상했다. 사진은 보지 않았고 이름과 나이가 27살이고 태국 아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 아이에게 뭔가 끌리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남편과 아들의 마음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시간은 흐르고 끝이 났나보다 생각했고 아들도 남편도 별일 없는 듯 보였다.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추적추적 오던 날 나의 휴대폰으로 장문의 편지가 왔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더리니라고 해요. 저는 제민이 오빠를 무척 사랑한답니다. 엄마 아빠께선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 압니다. 제가 제민이 오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세요. 엄마 아빠! 한국이 너무 좋고 오빠도 너무 좋아서 함께하고 싶어요, 엄마...>

장문의 편지엔 중간중간 ‘함께할게요, 함께해 봐요, 함께 잘할 수 있어요’라는 말과 ‘반대하는 엄마 아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말에 난 어느새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36년 전의 나의 모습이 이 아이의 모습 같았다.

나는 한 남자를 사랑했다. 2년의 연애 끝에 시집에 인사를 갔는데 시아버님의 질문에 난 기가 죽고 말았다. 학벌, 가족관계, 직업 등등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다. 그때의 그 넓은 저택은 나를 짓눌렀고 쥐꼬리만한 나의 학벌은 쥐구멍이라도 뚫고 들

어가고 싶었다. 그때의 그 넓은 거실에 놓인 황금빛 테이블은 내 얼굴을 분사시키는 것 같았다. 그리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 나는 얼어붙었고 시아버님이 담배에 불을 붙이는 소리가 연신 들렸다. 시어머님은 그때 뭘 하셨는지 모르지만 단 한마디도 안 하셨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이 내 잘못도 아니고 덜 배운 것도 죄는 아닐 터인데 난 왜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있는 걸까. 잘 차려진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입이 말라 물 한 모금도 마시다가 사레가 들려서 콜록콜록하다가 심하게 기침을 해댔다. 하지만 기침보다 고통스러운 건 온기 없이 싸늘한 어른들의 반응에 기가 죽고 숨이 막히고 몸에 쥐가 나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상황을 파악한 아버님이 “덜고 나가거라” 짧게 명령스럽게 말씀하셨고 난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엉거주춤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저를 받아주세요. 우리 사랑합니다.”

그 후 몇 번을 더 갔지만 아버님은 끝까지 반대하셨다.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 큰 저택에 우리가 가면 자동으로 문이 잠겼다. 5년 동안 대문 밖에서 정원의 나무들만 쳐다보고 돌아오곤 했었다.

반대한다고 우리 사랑은 식지 않았다. 반대할수록 더 강인하게 사랑도 불태웠고 시집 도움 없이 월세에서 전세로 옮겼고 사랑스러운 두 아이도 생겼다. 아이들이 슬그머니 아버님에게 스며들었고 우리 부부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아버님과 두 아이는 넓은 정원을 뛰어놀았다.

나는 리사의 편지에 답을 썼다.

<너희들은 둘 다 성인이고 사랑할 수 있단다.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어른이 반대해도 이겨나갈 수 있으면 된단다. 태국에서 온 것이 죄도 아니고 말이다.>

그렇게 응원을 받아 잘 차려입은 아들과 리니가 인사를 왔다. 하지만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리니에게 음식도 덜어주고 커피도 갖다주며 말했다.

“사레 걸리지 않게 천천히 먹어라. 그리고 다리 쥐 날라. 다리 편하게 앉아도 된단다.”

그 후 아들은 아빠의 반대에도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은 며느리가 임신 중이란다. 반대 때문에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 산다. 난 리니에게 카톡을 보냈다.

<조만간 출산할 텐데 10평짜리 원룸이 좁지 않겠니?>

<어머님, 괜찮아요. 오빠랑 돈 벌어서 더 큰 집으로 갈게요.>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을 안 해서 섭섭하지 않겠어. 아기 낳고 나면은 웨딩숍에서 드레스 입고 사진이라도 찍지. 내가 돈 줄게.>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 돈으로 찍을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응원해 줘서 힘이 납니다. 우리 함께 잘살 거예요.>

며칠 전 제법 배가 나온 아들과 며느리가 혼인신고 했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보여줬다. 남편은 아직은 오리무중 상태다. 삼겹살을 구워도 한마디 말이 없다. 그래도 나는 안다. 옛날에 아버님이 나한테 그랬듯이 남편 또한 어느 날부터 며느리를 역시 사랑할 것을. 삼겹살 먹은 기름접시를 씻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온다.

“어머니 우리 함께 씻어요.”

이 아이는 함께라는 말을 참 자주 한다. 그래서 난 안다. 이 아이가 나처럼 열심히 살 것이고 훗날 남편도 며느리를 엄청나게 사랑해서 집도 사 줄 거란 걸 옛날 시아버님이 나에게 그랬듯이! 함께라서 너무 좋았다고 두 손 모아 감사할 뿐이다.

2025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입선

# 혼디 살아사주게

강충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저** 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올해 신춘편지쇼의 글제인 ‘함께’를 제주어로는 ‘혼디’라고 합니다. 혼디를 함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재혼입니다. 아버지는 제겐 큰어머니인 첫 번째 부인이 딸 셋을 두고 세상을 먼저 떠난 상황이었고, 엄마는 폭력과 술주정이 심한 첫 남편을 피해 친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엄마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새엄마가 되어 달라고 말이지요. 아버지는 1936년 생이신데 키가 180입니다. 얼굴도 정말 잘 생기셔서 누구나 아버지를 보면 신성일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완강히 거절했던 엄마는 잘생긴 얼굴에 집 뒤꼍에 어지럽혀진 무거운 항아리들을 번쩍번쩍 들어 정리해 주는 아버지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때 아버지가 참 멋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엄마는 재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첫 부인이 낳은 그 당시 9살, 5살, 3살의 딸들인 제 이복누나들과 혼디 살게 된 것이지요. 1965년이었습니다. 엄마는 폭력과 술주정이 심했던 첫 남편과 달리 잘 생기고 다정다감하고 힘이 센 아버지와와의 결혼생활은 행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재혼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아버지의 감춰왔던 성격이 드러났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아주 심한 다혈질이었습니다. 평온하다가도 순간 화를 내면 견잡을 수 없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가정폭력도 심했습니다. 엄마를 또 힘들게 한 건 얼굴값 하는 아버지의 바람기였습니다. 엄마는 한 달도 안 되어 아버지를 알고 말았습니다. 첫 남편보다 덜하지 않았답니다.

엄마는 결심을 합니다. 벚꽃 흐드러지게 핀 4월, 보따리를 들고 신작로 차부 앞에 섰답니다.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말이지요. 하루에 한 번 오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여자아이가 맨발로 뛰어와서 순식간에 엄마의 보따리를 뺏었습니다. 둘째 딸이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차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빼앗은 보따리는 가슴에 꼭 안은 채 말이지요.

“어명 가지 마. 가지 마. 우리영 혼디 살켄 해시민, 혼디 살아사지(엄마 가지 마. 가지 마. 우리랑 함께 살겠다 했으면, 함께 살아야지).”

엄마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벚꽃 핀 길을 걸어 다시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자신을 엄마라 부르던 아이가 너무 가여웠고 혼디 살겠다던 약속을 지켜야겠다 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마음을 바꿔 세 딸을 키웠고, 그 후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차례로 딸, 아들, 그리고 딸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짝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 이복누나 셋, 친누나 하나, 친여동생 이렇게 1남 5녀의 외동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는 화는 외동아들인 제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늘 불안했고 무서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바다에서 동네 아이들과 장난처럼 수영 시합에서 꼴찌 했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사람이 다 보는데 숨 가빠하는 제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그 나이에도 아픔보다 치욕스러웠습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는 한없이 자애로운 모습을 보여 저는 그게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감정 기복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건 식구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면 된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엄마가 늘 다독겨려주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박한 평화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깨지고 말았습니다.

장마가 시작될 무렵부터 엄마는 밥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수술하면 다시 시력을 회복할 줄 알았던 엄마는 며칠 뒤에 돌아왔습니다. 같이 갔던 아버지는 시신경마비로 치료법이 없고 완전 실명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전하며 “스트레스받을 일이 뭐가 있다고 의사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뭐…”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점점 시력을 잃어 어둠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한 일은 새로운 자기 부인을 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첫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엄마를 찾았던 것처럼 말이지요. 다른 게 있다면 우리 엄마는 멀쩡히 살아있었고요.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결혼하고 살려면 새엄마가 필요하다”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던 아버지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봄이었습니다. 도저히 이 해할 수 없다고 왜 반항하지 않았냐고 하겠지만 그때도 아버지가 두려웠고 반발하면 그 분풀이는 고스란히 엄마에게 돌아갔던 터라 차

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한 집에서 남편의 새로운 여자와 혼디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저희도 전혀 원하지 않았던 혼디 살기였습니다. 엄마가 친정집으로 되돌아가 버리려고 하다가 혼디 살기로 마음먹고 품었던 의붓누나들은 다 결혼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새로운 부인, 제게는 새엄마는 제 엄마와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키와 체구였지만 아버지에게 절대로 고분고분하지 않아 다툼이 잦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새 여자에게도 손찌검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싸움을 자주 말렸습니다. 전쟁 같은 싸움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는 크게 싸우고 쉽게 화해했습니다. 건디기 힘들었던 건 밤에 건너편 아버지와 새엄마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엄마의 귀를 살포시 막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제가 고3 때 첫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둘째 아이도 낳았습니다. 둘 다 딸이었습니다. 제게 의붓여동생 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남 7녀 중의 외아들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한 1991년 가을, 새엄마는 자신이 낳은 두 딸을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다섯 살과 채 돌이 되지 않은 두 아이 돌봄은 오롯이 앞 못 보는 엄마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우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밥 먹이고 두 아이 돌봄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 살림을 할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고 새로운 여자를 들였는데 오히려 큰 짐을 엄마와 제게 떠넘겼습니다. 자주 술을 마셨고 엄마에게 “모든 게 너 때문이다”라고 퍼부었습니다.



아버지는 새엄마가 낳은 두 동생을 보육원이나 다른 집에 보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하소연이 귀찮은 이복누나들이 아버지의 전화를 아예 받지 않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저기 전화를 했고 금방이라도 실행에 옮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버지에게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어딜 보냅니까? 혼디 살아사주게(어디를 보내요? 함께 살아야지요.)”

아버지가 정말로 이복여동생 둘을 보내버리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혼디 살아야 한다고 제동을 걸어 아버지가 멈출 구실이 되었다는 것은 맞았습니다. 어린 동생 둘의 돌봄은 저와 엄마의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부터는 오롯이 엄마

의 몫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1965년에 이복누나 셋을 혼디 살며 키워냈던 것처럼 거의 30년 뒤에 앞이 안 보이는 채로 다시 당신의 배로 낳지 않은 딸 둘을 혼디 살며 키웠습니다.

그 후 저는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은 다음 해 2001년에 엄마를 모셔 와서 혼디 살았습니다. 그해 엄마의 생일잔치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둘째도 태어났고 아이들은 할머니를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엄마와 육지로 여행을 자주 갔습니다. 엄마는 절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엄마는 비로소 자주 웃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엄마가 있어 좋았고 술 마신 다음 날 잔소리마저 좋았습니다. 엄마와 혼디 살아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202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뜬금없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장례식 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였으니까요. 엄마는 올해 아흔다섯이 되었습니다. 기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두 이복동생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어린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던 친엄마와 일상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복누나들은 엄마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엄마는 의붓딸 다섯이 당신을 찾아오지 않아도 단 한번도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들과 혼디 살면서 돌보고 키웠던 일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엄마의 혼디 살기는 참 바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어떻게 살아져서(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물으면 “그냥 살았저(그냥 살았다)” 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서 25년을 혼디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척 고맙습니다. 이 편지를 빌어 엄마에게 전합니다.

“엄마! 우리와 혼디 살아 준 것이 아주 고마워!”

2025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입선

#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조종환 | 전남 순천시 삼산초등길

**살**면서 몇 번이나 느껴볼까요? 외롭고 두렵고 쓸쓸하고 홀로 헤쳐 나가야 하기에 지치고 다 놓고 싶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노력은 실패를 동반하지만 그래도 버티다 보면 변화를 불러옵니다. 변화를 위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의지는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아내가 좋고 아이가 좋고 트럭이 좋습니다. 그리고 MBC 라디오가 참 좋습니다.

저는 장거리 트럭 기사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출발하여 경기, 충청, 강원, 경상, 전라 등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전국을 누비며 밤낮으로 운행합니다. 적게는 12시간, 많게는 30시간 가까이 운전하다 보니 늘 23톤 트럭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운송업은 운이 좋아야 돈을 번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도로

위 위험 상황도 많고 무거운 중량을 실어 나르는 것이기에 차량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도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으면 한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이기에 늘 긴장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고 넓게 보며 마음의 여유를 조금만 남겨두면 고속도로의 경치 좋은 풍경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각 지역을 이어주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야간에도 빛을 발하는 도시, 언제봐도 마음이 편한 시골, 한참 개발 중인 지방의 어느 지역,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 등 익숙한 곳을 지나 새로운 지역을 마주하는 건 그것도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은 이 직업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긴 시간 동안 운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잡념들이 하나둘씩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타지에 있는 형제의 안부, 커가는 아이, 대출 상환금, 직업의 미래, 그리고 아내.

아내는 제게 부처님입니다. 결혼 초 저는 아직 실패로 보이지 않는 어둠의 동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현실적으로 돈벌이를 하지 못한다면 그 누가 이해를 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아내는 제게 닦달하듯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으며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으며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출산 휴가 후 생업을 위해 이른 복귀를 하면서도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끼니 거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주눅 들지 말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내의 출근길에 아이는 차가에 맡겨졌고 백수 남편의 하루하루는 타들어 가는 마른 지푸라기처럼 금세 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초라한 인간이 되어버린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건 바로 아내였습니다. 퇴근 후 어디 일자리 좀 알아

봤느냐의 말보다는 잠은 좀 잤는지? 제가 좋아하는 산에는 좀 다녀왔는지? 점심은 챙겨 먹었는지? 마음은 좀 차분해졌는지? 일자리가 아닌 백수 남편의 안위를 먼저 챙기는 사람에게 저는 한 없이 미안했고 고마웠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적인 가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허송세월 할 수 없어 싸움이 많은 일터에서 탈피하고자 움직였던 이직은 잠시 접어두기로 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었고 아내 혼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신경이 곤두서있고 주눅 든 모습을 더 이상 아내에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가장 빠르게 곧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일. 벗어나기 위해 빠져나왔던 그 일. 그렇게 생계를 위해 떠나왔던 이전 직장에 재입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장의 급한 불은 꺼졌습니다. 그럼에도 퇴사 전 고민은 여전했으며 재입사 1년 후 다시 한번 이직을 위한 날갯짓을 시작하였습니다.

용접 생산직, 식자재 배달, 크레인 운전, 냉동설비자재 판매, 음식물 쓰레기 처리원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무엇을 해야 좋을까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만 가득했던 저는 주어진 당장의 숙제만 잘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장학금 놓친 적 없었고 학점 관리도 잘하여 저는 제가 잘하고 있는 줄로만 큰 착각을 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가람 가수의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별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면 가사가 참 공감이 되어 코끝이 시큰해지곤 합니다.

졸업하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그때부터 시작된 우왕좌왕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열심히 걷기만 했던 길을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니 당황함보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예뻐으며 아내는 저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는 게 내게 맞을까? 나는 무엇을 좋아하나 하는 학생 때나 했던 진로 고민이 너무나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숨 막히는 사무실에서 절제된 회사 체제가 제겐 맞지 않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못 먹고 못 배운 한이 자식에게 전가되어 대학 진학이 성공하는 삶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때론 오류를 낳기도 합니다. 앞서가려는 욕심만 있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모른 채 뛰면 더 멀리 뒤쳐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에서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봐야 합니다. 이 조건을 내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키워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격증도 해외연수도 좋지만 젊었을 때, 이왕이면 결혼 전 혼자일 때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우여곡절 끝에 운송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속된 말이 있습니다. 하다 하다 안되면 마지막에 찾아가는 것이 운전기사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불철주야 운송 분야에 앞장서는 이들이 있기에 내수 시장이 원활하며 수출 시장에서도 우리 운송업에 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

단이든지 몇몇 사람의 잘못된 행동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전체가 욕을 먹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몇몇 이기적인 사람들이 흐린 구정물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 업계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우여곡절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워낙 위험하고 단 한 번의 사고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기에 초보자가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긴 시간 동안 영업직을 해서인지 주변에 아는 분들이 많았고 그동안 보여줬던 제 성실함과 책임감이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기꺼이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형트럭이 익숙해지는 지금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승용차만 타고 다녔을 때는 화물차나 버스처럼 대형 차량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고 회전반경과 제동거리를 몰랐기에 늘 난폭운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아보니 차량이 길고 크고 무겁다 보니 난폭운전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운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경험치가 쌓인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나라 경제 발전에 늘 함께하는 잠 못 자고 끼니 거르며 일하는 어느 집안의 짝한 가장들입니다. 사회구조가 갑을병정이 있다면 아마 정이지 않을까 합니다.

가족 또한 그렇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부담이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기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기에 웃는 것이고 함께하기에 힘겨움도 서로 기대어 가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 이문세 씨가 진행한 '별이 빛나는 밤'을 계기로 때때로 들었던 라디오 또한 지금은 긴 여정의 시간을 함께해 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특히 저는 표준FM MBC라디오 애청자입니다. 16개의

라디오 채널을 저장할 수 있는 제 트럭에는 지역별 MBC 주파수가 12개나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터널을 통과할 때나 산간 지역 이동 시에는 별도로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 또한 제가 좋아서 찾는 것이니 괜찮습니다.

준비 없이 맞닥뜨린 사회인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들이닥친 좌절에 혼자가 아닌 그 무언가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난무하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소식에 마음이 철렁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좌절에 결코 무릎을 꿇어서는 아니 됩니다.

제게 아내와 아이가 함께하고 있고 트럭이 함께하고 있고 MBC 라디오가 함께하고 있듯이 삶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모든 걸 홀로 다 떠안으려는 부담감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으시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변환점은 반드시 옵니다. 마음이 아파 숨어계시는 분들께 감히 한마디 올리자면 계속해서 도전하고 움직이십시오. 분명 손을 내미는 혹은 손을 잡아주는 이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입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다려주세요. 손잡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별이 좋은 날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는 홍매화가 아주 예쁩니다. 뭐라도 시작하기에 충분한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도 삶 앞에 당당한 일원으로서 우리 다 함께 힘내봅시다.

2025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입선

# 너는 나의 송 나는 너의 경

동해경 |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

따스한 봄날의 아침 해가 유난히 밝은 빛을 뿜어내고 있다. 아침 출근길로 바쁜 자동차들이 빈틈을 메우며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바쁘게 달린다. 얼굴과 나이는 몰라도 목적지는 달라도 목표는 단 하나일 것이다. 오늘도 힘들겠지만 잘 버텨보자.

매일 아침 나는 운전석의 옆자리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키고 있다. 나는 운전엔 집중하고 있는 신랑에게 묻는다.

“자기야, 나와 함께하면 뭐가 좋아?”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대답한다.

“뭐가 좋다니 그게 뭐 말이야. 다 좋지.”

“아니 1년 365일 밤낮으로 우리 함께하고 있잖아. 지겹지도 않냐고. 15년 살았으면 지겨울 때도 되지 않았어?”

“지겨웠으면 하루라도 못 살았지. 안 그래? 근데 왜 아침부터 그런

걸 물어보냐? 뭐 잘 못 먹었어?”

하하하~ 나는 웃는다. 그렇다. 신랑과 나는 15년을 하루 같이 매일 붙어 있다. 같은 회사에 같은 부서에서 과장님, 회사원으로 우리는 머리만 들면 바로 보이는 가까운 곳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이자 부부이다.

아침 6시 알람이 어두운 방 안의 정적을 깬다. 우리의 하루가 시작된다. 성격이 급한 신랑이 가스불을 켜며 묻는다.

“아침 뭐 먹을래?”

“밥 먹을래. 맛있게 해주세용.”

나는 서둘러 화장실에 들어간다. 출근 준비. 나의 송이 그럴듯한 아침 밥상을 차려준다. 계란후라이 각자 2개씩 4개, 구운 김, 어제저녁 내가 끓여 놓은 들깨 미역국. 자상하고 꼼꼼한 신랑 덕분에 편안하고 맛있는 아침을 먹는다. 배를 든든하게 채웠으니 돈 벌러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서로 기대며 회사에 출근한다.

내가 나의 송을 만난 건 15년 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안고 첫 회사에 입사한 그때부터이다.

나는 탈북민이다. 2011년 1월 1일 아침 5시 인천공항에 첫발을 내디뎠다. 어리둥절했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황홀하다. 내가 드디어 한국 땅에 왔다는 신기함,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다. 새벽부터 우리를 기다리던 선생님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우리는 두 줄로 줄을 맞추어 인천공항의 여기저기를 둘러볼 새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묵묵히 일행을 따라나선다. 남루한 옷차림에 줄지어 가는 우리를 바라보는 몫시선들을 뒤로한 채.

그리고 정착지에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적응의 시간. 배움과 꿈을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향후 10년 20년을 제2의 인생의 그림을

나는 그려야 했다. 실천해야 했고 또 살아가야 했다. 오직 나만의 방식으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해나가야만 했다. 아득히 멀기만 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서 나의 이름을 목 터지라 부르고 있을 엄마 얼굴을 그려보며 기약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순종할 수밖에 다른 방도는 더 없었다. 눈물이 흐른다. 고요한 적막 속에 아무도 없는 빈방에 홀로 앉아서 고향을 그린다. 보고픈 엄마, 나의 언니들 그리고 나의 친구들. 깊은 한숨이 슬픈 나의 마음이 고요한 방안에 빈자리 없이 꽉 차 있다. 내가 과연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잘살아갈 수 있으려나 걱정만 앞선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여기 왔고 숨이라도 크게 내 마음대로 쉬고 싶어서 죽을 고비 넘기면서 힘들게 왔는데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어찌지, 어떡하지. 일단 잠이라도 푹 자보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 내일의 태양은 또 밝아 올 테니까. 해가 뜬다. 아침이 밝아 왔다. 새로운 아침을 나는 또 맞이한다.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대구에 있는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서 일 자리를 소개시켜 주신단다. 그렇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나는 취업에 성공하였다. 어렵겠지만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새로운 텃밭에서 넘치는 자양분을 받으며 든든한 뿌리를 내려 나의 인생 2막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나의 작은 몸 하나로 혼자만의 힘으로 광활한 대지에 새 터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내 나이 40대 초반 그리고 아직은 건강한 내 몸. 새로운 고향에 정착하여 아름답게 가꾸어질 인생 후반의 꽃밭에 더 없이 찬란하고 더할 나위 없이 눈부신 탄탄한 대로 위에서 나는 질주할 것이다.

염색공단에서 일하던 12월 25일 나에게 사랑이 시작되었다. 갈 곳

없어서 집에서 홀로 앉아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를 센터 선생님들과 센터에서 알게 된 친구들에게 보내던 중 회사 동료들 누구에게 보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당시 가공부 직속상관이었던 나의 송계장님에게 <크리스마스 좋은 날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하세요>라고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온다. <경 씨도 혼자죠. 나도 혼자여서 행복할 수가 없네요.> 나는 그만 머리가 멍해졌다. ‘아니 왜 혼자야. 가족은 없나.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아이들은… 근데 이런 문자를 왜 나한테 보내는 걸까.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아지면서 나는 질문을 해본다.

<왜 혼자이신가요. 계장님은 가족 있으시잖아요.>

<오늘 다른 약속 없으면 나랑 밥 먹을래요?>

나는 망설임 없이 무언가에 찌인 듯 짹짹 일어나 세수하고 화장하고 약속한 시각에 맞추어 만남의 장소에 나갔다.

대구의 끝에서 끝으로 오는 거라서 운전하여 왔단다. 수줍게 웃으며 차 문을 열어준다. 나는 운전석 옆자리에 스스럼없이 앉는다. 이 동네 유명한 맛집을 소개시켜 준단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우리의 첫은밀한 데이트는 시작되었다.

식사 함께하면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의 송계장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8남매란다. 헐~ 나는 깜짝 놀랐다. 더 놀라운 건 자식이 둘인데 아들이라는 것과 이혼하고 2년 넘게 아들들을 홀로 키우다 보니 요즘 너무 많이 힘들고 속상한 일이 많다고 입에 술을 털어 넣으면 얘기한다. 깊은 한숨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 나도 잘 마시지는 못하지만 함께 마시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처음 대한민국에 왔으니 모르면 물어보고 회사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를 자세히 얘기해

준다. 적응을 잘하는 방법, 사람 대하는 방법, 북한과 다른 점들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하게 되었다. 나의 송 그리고 나도 사람이 많이 고팠나보다.

그 후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났을까, 우리 사이를 알아버렸다. 회사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이참에 나는 망설임 없이 정부에서 준 탈북민 정착 주택을 반납하고 그의 집으로 이사를 왔다.

“경아, 앞으로 나와 함께하는 긴 시간 동안 행복하게 해준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밥은 절대 안 굶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시집와 주라.”

하하하~ 나는 그냥 좋았다. 아니 아무런 이유도 걱정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예구, 미쳤나 봐. 애가 둘인데 왜 멀쩡해 갖고 남의 자식을 키워. 혼자 살면서 적당히 연애만 하면 되지. 그 집에는 왜 들어가냐?”

주변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간다. 나는 귀를 닫아 버렸다. 아니 남의 말 신경 쓰지도 않았고 네가 옳은 길 간다고 생각했다. 남은 남의 이야기하기 좋아한다고 답을 정해 버렸다. 험난한 가시밭길이건 울퉁불퉁 자갈밭이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었고 또 그 하나만을 믿고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러나 험난했다. 나는 처음 걷는 낯선 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다.

15세 사춘기 큰아들, 뽕송뽕송 솜털이 아직 가지지 않은 9살 아기 같은 작은아들. 나는 현실을 너무 몰랐고 동정심에 빠져 있는 내가 과연 잘해 낼 수 있을까 겁이 났다. 그리고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매일매일 퇴근하고 집에 가면 이어지는 큰애와 아빠와의 난장판. 서로에게 지지 않으려고 꼬투리에 꼬투리를 잡아가며 말싸움이 지속되고 정말 태어나 처음 보는 사춘기 소년의 질풍노

도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 남에게 절대 지려 하지 않고 자기주장이 강한 고집불통인 아빠와 그에 걸맞게 엄마와의 이혼을 오로지 아빠의 무능력 무책임으로 단정해 버리는 큰애의 나름대로 정당당한 자기만의 세계에서 올바른 주장이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고 똑같은 언쟁 다툼으로 싸움에 싸움이 이어졌다. 그러다 보니 결국 참다 참다 폭력으로 이어지고 울고불고 정말 더 이상 답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었고 지탱하기도 힘들어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둘의 싸움을 몸으로 막아서야 했다. 폭력을 휘두르는 아빠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길어진 싸움의 끝에 울고 있는 큰애를 다독여주고 이해시키는 일이 오로지 나의 몫이 되어버렸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10층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큰아들의 물음에 쿡하고 심장이 내려앉는다.

“미안해, 미안해. 어른들이 못나서 정말 미안해.”

나는 큰애를 꼭 안아주었다. 무조건 그의 편이 되어 주었고 그의 말을 들어 주었다. 그 애의 깊은 가슴속 응어리를 꺼내어 풀어주고 어루만져 주었다. 얼마나 아팠을까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린 가슴에 상처는 또 얼마나 깊을까. 이혼은 어른들이 했지만 정신적 피해는 애들이 보고 있다. 아이들은 태어난 죄밖에 없다. 누군가가 책임이 있다면 그건 어른들의 몫인 것이다.

아, 힘들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 나온다. 아빠는 베란다에 나가 있었다. 그런데 간간이 흐느끼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온다. 나는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갔다. 나의 송이 울고 있다. 이를 어찌할까. 나는 그를 꼭 안아주었다.

“힘들지. 많이 힘들었겠다. 자기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울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있잖아. 우리 혼자가 아니잖아. 힘든 일 같이 풀어나가자. 더 힘들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자. 알았지.”

하루 일 마치고 곤히 잠들었는데 다급히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깬다. 작은애의 전화번호. 웬일이지.

“여보세요. 규 어머니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마트입니다. 집에 아들이 과자를 훔쳤어요.”

황급히 마트를 확인하고 주저 없이 옷 챙겨입고 달려갔다. 사장님의 얘기를 듣는다. 남자아이 4명이 쭈뼛쭈뼛 과자 매대 앞으로 다가서는 것을 확인하고 볼일 보고 잠깐 왔는데 계산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걸 불러 세웠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자가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단다. 애들이라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부모님들은 꼭 알아야 해서 연락드렸다고 말씀하신다.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사과드리고 과자값을 계산하려고 하자 사장님은 괜찮으니 그냥 가셔도 된다고 하신다. 다른 애들 부모님들도 오셔서 사과드리고 가신다.

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작은애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들어섰다. 시간은 새벽 2시다. 신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연을 물어보았으나 나는 그냥 내일 아침 얘기해 준다고 하고 늦은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작은애의 휴대폰에 문자를 보냈다.

<오늘 나하고 데이트할래?>

흔쾌히 허락한다. 퇴근하고 그 마트를 다시 찾았다. 자식 잘못 키운 어미의 송구한 마음 가득 담은 선물 꾸러미와 함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식 잘못 키워서 미안합니다’ 하고 돌아서려는데 사장님 말씀.

“애들인데 그럴 수 있죠. 제 집에도 비슷한 남자애가 있어요.”

가슴이 뭉클하다. 작은애와 만났다. 그동안 조용하고 속 안 썩여서 고마웠는데 도둑질을 하다니 화가 치밀어 올라 욕을 찰지게 해주고 싶었지만 나는 나의 마음을 다스린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어릴 적에 다 그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기에는 죄가 너무 크다.

“너는 어젯밤 절도행위를 했어. 이유야 어떻든 남의 물건에 손대면 그건 경찰서에 잡혀가야 해.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큰 잘못을 한 거야. 지속되면 안 되는 큰일을 저지른 거야. 알고 있지.”

“알아요. 친구들과하고 같이해서 또 제가 한 게 아니라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준다.

“그동안 형아한테 신경 쓴다고 너에게 관심 가지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 네 잘못 알았으니 다시는 안 그러리라 믿을게.”

아이를 달래주고 있는데 친구들이 몰려온다. 애들을 데리고 마트에 들러서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친하게 지내고 나쁜 일 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아주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발걸음이 내 마음이 가볍다.

며칠 후 미용실에 들렀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라디오 소리에 귀가 번쩍 뜨인다. 사장님께 여쭙보고 엠비시 라디오 미니 어플 깔고 매일 아침 여성시대를 듣는다. 숨이 자유롭게 쉬어진다. 그동안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차곡차곡 쌓여 있던 세월의 응어리가 서서히 풀어지는 느낌이 든다.

“참 잘했어.” 양희은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의 마음에 들어온다. 서경석 님의 유머가 입가에 웃음 짓게 한다. 음성사서함에 ‘길’이라는 제목의 자작시를 지어서 소개받기도 한다. “참 멋져요.” 칭찬해 주시는 두 분의 칭찬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행복했다. 더할 나위 없이…

수많은 사연과 사연 속에 사람 냄새가 풍긴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누구나 다 아픈 사연을 안고 산다.

주말이다. 평온한 기운이 집안에 감돈다. 연로하신 시부모님들께서 시골에서 농사짓고 계신다. 가서 도와드려야 한다. 뭐 드시려나 바리 바리 장을 봐서 짐 챙겨 떠난다.

“어머님, 저희 출발했어요. 고등어 사 오라 하셔서 수산시장 들러서 사서 갈게요.”

“에그~ 힘들고 피곤할 텐데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또 오네.”

“괜찮아요. 어머님 얼굴 한 번 더 뵙고 좋죠.”

시간 나면 틈틈이 시댁 가서 어머님 일손을 도와드리고 있다. 아버님 먼저 여의시고 이제는 어머님 홀로 계신다. 정이 넘치고 따뜻한 어머님 일손 도와드리고 함께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일주일은 끄떡없이 힘이 난다.

나는 사람 부자다. 어머님 아버님 성품 닮아서 한없이 인자하고 너그러우신 친언니 같은 시누이 네 분이 계신다. 해마다 헛고추장 맛있게 담가 주시는 큰고모, 찌뽕을 좋아한다고 택배 자주 보내주시는 작은고모, 뛰어난 요리 솜씨 자랑하며 밑반찬 챙겨주시는 작은고모와 제 생일 잊지 않고 거액의 돈을 송금해 주시는 막내 고모까지 거기에 공짜로 생긴 두 아들. 그리고 나의 곁에서 세심하게 다칠세라 보살펴 주며 잔소리까지 섞어가며 챙겨주는 나의 사랑하는 송이 있다. 넘쳐나는 인정을 작은 한 몸에 다 받으며 살고 있다. 듬직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신 아주버님들은 힘들게 일하지 말라고 건강 챙겨 가면서 살라고 걱정해 주신다. 만약 나의 엄마가 살아 계신다면 “엄마 나 힘들었지만 용케 잘살아왔지” 하면서 늘어지게 자랑할 텐데.

자식들이 이제는 우리 동지에서 떠나간다. 큰아들은 아빠처럼 안

살겠다고 큰소리치며 군 제대 후 밤낮 가리지 않고 열공하더니 단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은 군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작은 아파트를 혼자서 마련하였고 이사까지 한다. 대견하고 멋진 올 아들, 사랑한다. 작은아들은 서울에 취업해서 또 떠나갔다. 네 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울고불고 난리 치던 우리 집에 아이들의 흔적이 하나들 사라진다.

나는 꼭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다. 성공의 뒤에는 누군가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그리고 모두 함께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은혜를 입었으면 꼭 갚으려고 노력하고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혼자였다면 가능했을까. 자식 둘을 키우고 작은 집에서 큰집으로의 이사도 만약 혼자였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서로서로 챙겨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다독여 가면서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기에 오늘날의 결과물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싶어진다.

소원이 있다면 내 가족 모두가 건강 잃지 않고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안부 전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이루며 사는 것뿐이다.

여성시대를 매일 아침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라디오 들으며 하루의 충전이 시작되고 보람차고 의미 있는 활력소가 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사람 냄새 맡고 살 수 있어서 너무너무 나는 지금이 행복하다.

오늘도 나와 송은 따뜻하고 찬란한 봄 햇볕에 몸을 맡기고 서로 기대어 욕심 고개를 향해 회사로 출근한다. 더 나은 멋진 미래를 위하여 나의 송, 너의 경은 이렇게 하루를 인생을 빛낼 것이다.

2025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입선

# 마주한 눈물로 함께 희망을 봄

애청자 | 경기도

**태** 아 시절을 포함하여 21년을 나와 함께 산 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자살과 안락사 이야기를 하는 아들. 이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흐른다.

사람들은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다 하고 긴 터널은 반드시 지나간다고 위로한다. 정말 그러한 날이 오는 걸까. 회복의 시간은 너무나 더디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아들을 보며 점점 봄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낀다.

중2 때 사준 휴대폰으로 게임을 시작한 아들.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게임을 멈추지 못했다. 게임을 하려는 아이와 못 하게 말리는 부모는 치열하게 전쟁을 치렀다. 억눌린 감정들이 폭발하듯 욕으로 쏟아져 나왔고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 욕 소리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게임이 잘 안될 때는 마우스와 자판기 탭을 하거나 컴퓨터가

문제가 있다며 힘껏 소리를 지르고 자판기를 내리치는 과격한 행동으로 가족들을 놀라게 했다. 아들을 말린다고 방에 들어가면 흥분 상태의 아들은 방해한다며 화를 내고 온갖 욕을 퍼붓는다. 그러면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고 싸웠다.

게임에 중독될까 불안하고 아들이 미쳐갈까 불안했다. 강한 전염성을 가진 불안이 우리 모자를 요동치게 했고 합쳐진 불안은 폭언과 폭력으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위협했다. 이틀 밤을 새우고 휴대폰을 꼭 쥐고 잠든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다 내 탓만 같아 슬펐다. 착한 아들이기를 바랐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에 눈물이 났다. 도무지 헤어나 올 방법을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고 싶지 않아!”

싸움을 하던 어느 날 아들의 이 울부짖음은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다. 현실에 존재하고 싶지 않다는 아들과 직면하니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더는 아들의 게임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그냥 무력한 엄마가 되었다.

“불쌍한 내 아들,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었구나.”

함께 평평 울었던 이날을 잊을 수가 없다.

아들은 학교에서 친구가 없었다. 외로운 관찰자였다. 그래도 꾸역꾸역 학교를 잘 다녔는데 중3 때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될 때쯤 밤새 게임을 하느라 낮과 밤이 바뀌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수업을 듣지 않게 되었다. 어찌다 등교하는 날에는 “교실에 앉아 있으면 배가 아파. 방귀가 실수로 나오면 친구들에게 놀림당할 것 같아” 이러한 이유로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상담실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왔다. 자퇴하겠다는 아들을 겨우 설득했다. 학교 출석 일수가 부족한 것 같아 아들의 중3 온라인 수업을 대신 들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중학교를 졸업시켜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기에 어쩔 수 없었다. 고등학교는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정을 받았다.

“공부 안 해도 돼. 학교 가서 친구 사귀고 놀기라도 하고 와.”

학교만이라도 다녀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인데 체격이 좋은 친구들의 모습에 기가 눌렸는지 고등학교 입학하는 날에 복도에서 친구들을 피해 지나가더니 더 이상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일은 없었다. 온 세상이 잿빛으로 물들었다.

코로나 4년 동안 아들은 집에서 먹고 자고 게임만 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다. 가게에서 물건 사는 것도 겁을 냈다.

상담 선생님은 관계를 좋게 하면 언제라도 기회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아들과 덜 싸우고 사이 좋게 지내려고 노력했다. 한밤중에 이성을 잃고 큰소리로 욕하고 게임을 하면 “잠깐 엄마랑 바람 쐬러 나가자. 기분을 전환하면 게임이 잘 될 수도 있어” 하며 새벽 3시에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무작정 어둠 속을 함께 말없이 걸었다. 그러면 아들도 이성을 다시 찾았다. 이 경험이 쌓이다 보니 점차 내 안에 불안과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 아들도 정신과 약을 먹으며 조금씩 폭력성이 줄어들었다.

24년 1월 초 아들은 굉장히 힘들어했다. 또래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취업할 무렵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비관이 되었는지 우리 부부를 헐박하고 자살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나는 경찰에 아들을 신고했다. 키도 작으면서 왜 결혼해서 자신을 낳았는지 원망하며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나쁜 말로 심장을 후벼 판다. 아들이 무서웠다. 이웃에게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

도였다.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기 위해 자전거도 타고 시민 뮤지컬 활동을 하며 지내왔다. 그러나 아들은 코로나 시국에 아무도 연락해 주는 이 없고 찾아 주는 이 없이 외롭고 또 우울하게 혼자 버티고 있었다. 아들이 세상에서 잊힌 존재가 되는 것 같아 불쌍했다.

나 힘들다고 외면한 사이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다. ‘내가 아들을 포기한 것일까’. 아들을 위해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 아들에게 문자나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고 밖에 불러내어서 맛있는 거라도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주고서라도 이렇게 해줄 누군가를 찾고 싶었다. 마치 젓동냥을 하듯 사랑을 구걸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랑의 손을 뺀어 주지 않았다. 엄마인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기로 했다.

“엄마 일 그만두고 너랑 같이 운동도 하고 검정고시 준비하고 싶은데 함께 공부해 볼래?”

“엄마! 나 해볼까?”

예전에는 “검정고시가 목적이 되어서 그다음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보다 꿈을 먼저 갖고 검정고시가 징검다리가 되면 좋겠어. 꿈이 생기기 전까지는 검정고시 안 볼 거야” 이렇게 말했던 아들에게 변화가 생겼다. ‘해볼까?’라는 전과는 다른 반응에 서둘러 검정고시 책을 구입했고 우리는 공부하기 시작했다. 4년 만에 책을 펴는 아들은 처음에 하루 15분을 넘기지 못했다. 다투는 때면 “나 공부 안 해!”하며 속을 끓이기도 했다.

“엄마는 너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럴 거야!”

정말 힘든 싸움이었다. 누군가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

“너의 평생에 아들과 함께 검정고시 준비한 거 가장 잘한 일이 될 거야.”

눈물이 났다.

‘그래, 난 잘하고 있어’

아들은 공부한 지 3개월 만에 검정고시를 평균 91점으로 합격하였다. 함께 이뤄낸 결과물에 고등학교 3년 졸업장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린 함께 맛보았다.

“우리 아들 고졸 검정고시도 합격했는데 놀러 가고 싶은데 있어?”

“엄마랑 제주도 가고 싶어.”

무엇을 못 해주랴. 우리 두 사람은 따뜻한 봄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다녀왔다. 한라산도 왕복 10시간 걸려 함께 완주했다. 아들은 산을 왜 가자고 했냐고 오르는 내내 원망했다. 또 사람들을 경계하며 키 작다고 얼굴 못생겼다고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너에게 관심이 많지 않아” 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그 후 아들과 함께 컴퓨터 학원에 등록하여 나는 엑셀, 아들은 캐드 수업을 들었다. 중학교 2학년 이후 처음으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어디를 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그리 반가울 수 없었다. 수업 후 함께 자전거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맛있는 것을 사 먹었다. 봄바람 살랑 불고 순순히 따라주는 아들이 있어 좋았다. 이것이 위로라 여겼다.

“아들아 시원하지.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 좋지!”

“응 좋기는 하네.”

매일 쓸쓸하게 밥 먹다가 엄마랑 밥 먹고 같이 다니니 힘이 났을 것이다. 예전보다 밝아진 아들의 얼굴을 보면 참 뿌듯했다. 매일 매일의 작은 경험으로 아들은 세상 밖으로 조금씩 나왔고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덜 의식하게 되었다. 올 초부터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장족의 발전도 했다.

“엄마, 내가 오늘 같이 일하는 분에게 일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어.”

“진짜 네가 그런 말을 다 했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셔?”

“일 못 하는 건 괜찮대. 사고만 치지 않으면 되대.”

“너, 정말 잘했다. 네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다들 예뻐해 주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할 거야!”

우리 아들은 참 솔직하다. 행동이 재빠르지 못하지만 자신을 통찰하는 능력이 좋다. 그리고 말재주도 좋다. 이런 장점을 살려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다.

“엄마는 엄마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어.”

지난날을 반성하며 무릎 꿇어 용서를 비는 나에게 아들이 건넨 말이다. 엄마를 이해해 주는 것인지. ‘용서해 줄게’라는 말보다 더 마음에 새겨진다. 엄마로서 자격 미달이지만 여자로 태어나서 ‘생명’을 낳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엄마’로 불리는 위대한 존재인 것에 감사하다.

아들의 외로운 눈물을 보았고 아들은 엄마의 뼈아픈 눈물을 보았다. 아팠던 시간만큼 회복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쩌랴. 회복한다면야.

그리고 먼 훗날 “엄마가 내 엄마여서 감사하고 함께해 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아들에게 듣게 되는 날이 오면 그동안의 흘린 쓰린 눈물이 기쁨의 눈물에 씻겨 내려갈 것 같다.

엄마 곁에서 살아 숨 쉬어 주어서 고마운 아들!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하자구나. 사랑해~.

2025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입선

# 열아홉 살의 고백과 다짐

조수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평촌로

**안**녕하세요. 저는 별무리고등학교 3학년, 10대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조수아입니다. 여성시대에 편지를 보내는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처음 보냈을 때가 중학교 3학년이었으니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때의 저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인 제주도 이동수업을 앞두고 기대되고 떨리는 마음을 담아 저의 이야기를 보냈었어요.

제주도에서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푸르른 제주 오름에 올라 즐기던 사색, 기숙사 방에서 몰래 먹던 짜릿한 컵라면, 피 끓는 청춘에게 절대 빠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까지. 이제는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어 가끔 돌아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성에 잠기곤 합니다.

그때 분명 좋은 친구들 선생님 멋진 장소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

냈지만 쿨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것과 달리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과 그리움이 더 커졌었어요.

나의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노력에 비해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오해와 갈등이 눈덩이처럼 커질 때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남몰래 교실에서 영영 울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같이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저는 부모님께 많이 의지했었나 봐요.

돌아보면 저희 부모님은 정말 특별하신 분들이었습니다. 2007년 결혼 후 2년 만에 저희 남매가 태어난 이후, 엄마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유식을 먹기 전까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모유 수유를 하셨고, 아빠는 그 당시 남자가 육아를 도맡는 것이 흔치 않았음에도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석사 준비로 바쁜 엄마를 대신해 육아휴직을 하고 저희를 돌 보셨다고 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제가 여쭙었습니다.

“안 힘들었어?”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이랬어요.

“좀 힘들기도 했지. 근데 수아야, 엄마 아빠는 엄청 행복했어.”

“왜? 우리가 말을 잘 들었나 보지?”

동생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부모로서 너희가 자라가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쁘고 뿌듯했는지 몰라. 하다 하다 갓 싹 뚝까지 예뻐 보였 다니까.”

“너희 아빠는 육아휴직 하면서 너희가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말 해서 감동받아서 울었잖아.”

‘많이 미화된 거겠지’ 생각했지만 거듭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이어 가시는 부모님을 보며 그 말이 정말 다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부모님은 한결같은 진심으로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나 댄스 배우고 싶어!”

“아니야, 나 우쿨렐레 배울래!”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건축 수업 한 번 가보고 싶어.”

“아냐! 진짜 마지막으로 유도만 배워볼래!”

이런 식으로 흥미가 자주 바뀌며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었던 저에게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시려 부단히 노력하셨고 당신들의 입을 것, 먹을 것은 항상 나중이 되어 저희에게 매번 가장 좋은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힘난한 사춘기 시절 세상이 온통 뼈딱하게만 보이고 부모님의 말씀마다 말대꾸가 일상이던 시절에도 단 한번 언성을 높이지 않고 그저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셨죠.

제주도에서 돌아와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모님과 눈물의 상봉을 하며 당연하게 여겼던 부모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많이 깨달았고 까칠했던 태도도 점차 변화하며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자란 저는 부모님의 존재를 어떤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나눌 수 있는 둘도 없는 친구로, 세상과 부딪힐 때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선생님으로,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함께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열아홉 살. 저는 성인이 될 준비를 하며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고 부모님은 수능이라는 큰 시험

을 앞둔 두 수험생의 부모가 되셨습니다.

“넌 대학교 어디 가고 싶어?과는 정했어? 정시? 수시?”

고3이 되자 이런 질문들이 어디를 가나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잘해 별걱정 없는 동생과는 달리 공부엔 영 소질 없고 맨날 밖에서 운동하는 걸 좋아했던 저는 체육 쪽 진로를 고민하다 체육대학교 입시를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운동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선 공부도 운동도 모두 잘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간과한 사실은 예체능 진로에는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싼 학비에 더해지는 학원비, 인터넷 강의비, 교재비까지. 저는 그야말로 집안의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렸어요.

어린 시절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시는지도 모르고 원하는 걸 당연한 듯 요구하며 돈을 썼지만 이제는 아직 빛이 남아 있는 집안 형편도 알고 있고 저 때문에 부모님이 안 해도 될 일까지 하며 뒷바라지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서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졌습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힘드시면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나 위해 애쓰시는데 내가 다 망치면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한숨만 푹푹 쉬게 되더라고요. 결국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한테 돈 계속 들어가는 거 혹시 많이 힘들지 않아?”

그러자 부모님은 의아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걸 왜 네가 걱정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아니 그냥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까 봐. 내가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수아야, 체대 입시 정말 네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거 맞지?”

“응.”

“그거면 된 거야. 아빠는 네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실패와 성공을 떠나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그걸 하면서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해.”

“너를 위해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감사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도전해 봐. 엄마, 이래 봐도 적금 많이 모았어.”

그렇게 쿨하게 저의 부담을 덜어주고 한없이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할 원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고 정말 치열하게 고3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막연한 시험의 압박, 늘지 않는 실기 기록에 대한 좌절, 자꾸만 더 잘하는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생기는 열등감이 저를 어둠 속으로 삼키려 할 때마다 부모님의 응원과 덕분에 생긴 목표와 의지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든든한 내 편인 부모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며 단단한 모습으로 10대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그동안 낮간지러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며 편지를 마치겠습니다.

엄마 아빠!

방긋방긋 웃으며 ‘쫄아댄스’ 추던 어린 저는 두 분이 그 춤을 보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을 기억해요.

이제는 귀여움과는 많이 멀어졌지만 춤 말고도 다른 것들로 두 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비록 지금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감사와 사랑뿐이지만 더 멋진 사람으로 자라 물심양면으로 효도할게요. 그리고 두 분께서 괜히 걱정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게요.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두 분의 말처럼 저도 두 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 엄마 아빠, 앞으로도 저와 오래오래 함께하며 계속 행복하게 지내요. 지금처럼 제가 걷어가는 길을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가까이서 많이 도와주세요.

사랑한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 부모님을 가장 닮고 싶은 수아가 진심으로 올림

##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서울 양천구 중앙로의

여성시대 가족 김중철 님이

보내주신 사면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매년 신춘편지쇼에 글을 올리고도  
한 번도 당선된 적은 없지만  
올해도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글을 써볼 작정이다.

장원을 하겠다는 마음은 아니다.



그저 허물없이 내 이야기에 공감해 줄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쓰는 글이다.

재작년엔 아버지에 대한 글을 썼더랬다.



엄하기만 했던,  
긴 대화를 나누어본 적도 없는 아버지를  
나는 내내 미워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를 훌쩍 넘도록 살아보니



아버지를 향한 미움은  
사실 나 스스로에 대한 미움이었음을 깨달았다.

작년엔 류병 중인 아내의 이야기를 썼었다.  
 뭐 하나 자랑할 것 없는 나를 만나  
 고생만 하던 아내.



글로서 아내의 생을 따라가니  
 내가 아내를 얼마나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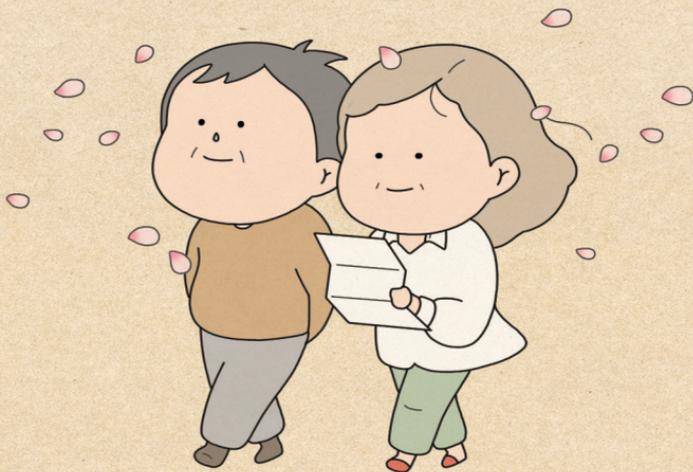


비록 당선은 되지 못했지만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여성 시대에 사연으로서 풀어놓다 보니  
 마음속에 차돌처럼 안고 살았던 삶의 무게가  
 덜어지는 기분이 든다.

신춘편지쇼에 사연을 쓰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다잡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가슴이 후련해지는 일임에 분명하다.



진심을 담은 글로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도 나는  
신춘편지쇼의 주인공이다.



## 환자들의 밥상을 책임지다



IBK기업은행 정관지점 거래고객  
(주)명세CMK 김종섭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명세CMK는 병원용 환자식 배식 카트를 개발하여  
국내 환자식의 품질과 위생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배식하는 노동자들의 편리성을  
더해주는 명세CMK의 배선카는 그 제품력을 인정받아  
현재 국내 500여 개 이상의 병원 및 해외 2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명세CMK는 1994년 설립되어 오  
직 고품격 배선카 개발에 집중해 왔  
다. 김종섭 대표가 회사를 창업할 당  
시 국내에는 배선카 제작 업체가 전  
무했고 배선카를 사용하는 병원도  
없었다. 김종섭 대표는 병원에 지인  
병문안을 갔다가 환자들의 식사가  
좀 더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배식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직접 배선카  
설계를 시작했다. 열정을 가지고 개  
발을 시작했지만 첫 제품을 완성하

기까지 4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설계도 설계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개발되는 제품이라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옆친 데  
덜친 격으로 개발 중 IMF가 터졌다.  
잘 나가던 사업체도 하루아침에 문  
을 닫는 판국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김종섭 대표를 주변에서 말리기 시  
작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  
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잃  
을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개발을 멈



추지 않았고 2000년도에 첫 제품을 만들어 부산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영업은 개발보다 몇백 배는 더 힘들었다. 당시 배선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물건도 보지 않고 문전박대당하는 일이 허다했다.

부산에서는 판매가 힘들다고 판단한 김종섭 대표는 화물차에 물건을 싣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을 찾아갔다. 담당자는 그가 개발한 배선카를 보더니 한 달간 테스트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테스트 기간에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직접 배선카를 사용하는 현장 인력들

의 컴플레인을 들었고 즉시 반영하여 제품을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 끝에 서울대병원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었다. 그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해졌다. 국공립 병원 및 국내 대형 병원들의 주문이 이어졌고 지방의 중소병원들도 배선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거의 중년 여성들입니다. 수천 명의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배선카는 환자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노동자들의 수고도 덜어주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수동이었지만 무거운 배선카를



힘들게 끌고 다니는 걸 보고 버튼만 누르면 움직이도록 전동 기능을 추가했고 자유로운 회전 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명세CMK의 배선카는 각종 안전 장치 및 견고한 구성으로 안정성이 뛰어나고 온도 조절 기능이 탁월하여 위생 관리에 뛰어날 뿐 아니라 전동 및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편리성을 더했다. 시대에 따라 제품도 변화해 왔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하여 무인자율주행이 가능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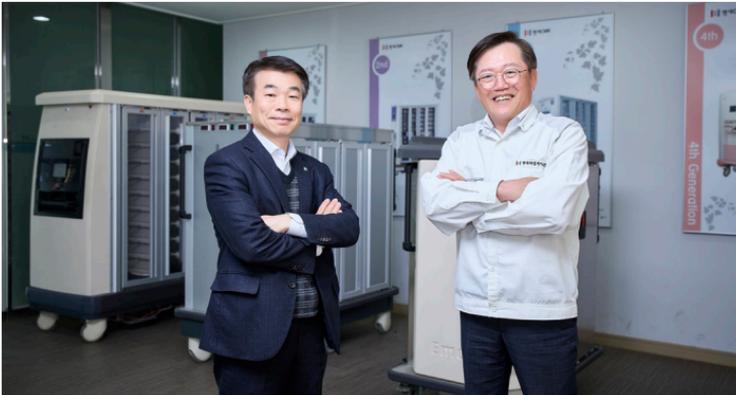
율주행 물류 로봇 트롤리’를 개발하여 시장에 소개했다. 인구가 줄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드는 시대 상황에 맞춰 개발된 제품이다. 명세 CMK의 ‘자율주행 물류 로봇 트롤리’는 인건비 상승,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콩을 비롯해 많은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첫 개발 당시에는 무엇보다 배선카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국내 기술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품력을 인



정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회사가 발전한 후에는 우리 기술을 도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서로 경쟁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IBK기업은행 정관지점 박이열 지점장은 “명세CMK는 창의적인 기술과 뛰어난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배선카 업계 선두주자”라며 “앞으로도 시대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혁신해 온 명세CMK와 계속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정관지점 박이열 지점장(왼쪽)과 (주)명세CMK 김종섭 대표

### ❶ (주)명세CMK 김종섭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기술력을 갖춰라.
2.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라.
3.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하라.

#### (주)명세CMK

대 표 김종섭

전 화 051-518-7135

주 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3로 73

홈페이지 <https://mscmk.com>



## 소비자들에게 맞춤 영양제를 제안하다



IBK기업은행 오송지점 거래고객  
한국바이오팜(주) 유건상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몸이 찌뿌둥하거나 피로할 때 영양제를 찾게 된다. '과연 나에게 필요한 영양제는 무엇일까?' 의문이 든다면 헬스너([www.helsner.co.kr](http://www.helsner.co.kr))를 추천한다. 한국바이오팜(주)은 개인의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맞춤 영양제를 제안하는 정기구독 서비스 헬스너를 런칭하여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최적의 제품을 추천하고 과도한 소비를 방지하여 경제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팜은 지난 30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연구 및 제조해 온 헬스케어 기업이다. 약 3년 전 한국바이오팜의 모회사인 헬스케어 전문기업 DXVX가 인수하여 건강기능식품 OEM·ODM뿐 아니라 글로벌 초일류 바이오 연구개발 네트워크에 기반한 원료 R&D 역량을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FDA에 시설 등록된 총 4,000여 평 공장의 10개 생산라인에서 K-GMP, HACCP 등 엄격한 생산·품질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나만을 위한 건강 파트너 'Helsner(헬스너)'를 런칭하여 개인의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최



적의 맞춤 영양제를 추천하는 정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헬스너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제를 추천하고 1일 단위로 소포장하여 제공한다. 소비자는 소포장 된 영양제 한 봉을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섭취할 수 있다.

“헬스너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양제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오늘 영양제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영양제를 섭취한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다가 중

단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경우 먹다 남은 영양제를 방치하여 결국 버리게 됩니다. 헬스너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포장마다 날짜가 적혀있어 섭취하기에 효율적이고 많은 양이 들어 있는 영양제를 한 통씩 살 필요가 없어서 경제적입니다.”

한국바이오팜은 영양제 소분업의 선두주자는 아니지만 확실한 차별점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대부분 영양제 소분업체는 주로 유통업체지만 한국바이오팜은 직접 영양제를 생산하는 생산자다. 타 업체는 한국바이오팜과 같은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하여 유통만 하지만



한국바이오팜은 영양제 제조부터 포장, 유통까지 한꺼번에 책임지고 있다. 직접 공장을 운영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직접 원료를 선택하여 제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한국바이오팜은 식약처 기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GMP 자격을 갖추고 있어 제품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소비자는 나라에서 인정한 GMP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선

택함으로써 안정과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다이소에 영양제를 납품하고 있다. 눈 건강, 스트레스, 다이어트, 피부 건강 및 면역, 비타민C 등의 영양제를 10~20대 타겟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알록달록한 패키지에 톡톡 터지는 재미있는 식감, 저렴하지만 고품질의 영양제로 값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IBK기업은행 오송지점 박현숙 지점장은 “한국바이오팜은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임에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IBK기업은행과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싶은 기대되는 기업”

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런칭한 헬스너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고품질의 저렴한 영양제가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이 함께할 것”이라고 응원했다.



한국바이오팜(주) 유건상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오송지점 박현숙 지점장

### ❶ 한국바이오팜(주) 유건상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고객 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하라.
2. 엄격한 품질관리와 시스템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라.
3. 장기적인 플랜을 통해 직원들의 신뢰를 쌓아라.

#### 한국바이오팜(주)

대표 유건상  
전화 043-753-7377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한삼로 212-7  
홈페이지 <http://koreabiopharm.co.kr/>



## 자투리 여행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참 심술궂은 봄이다. 쉽게 쉽게 곁을 주지 않는다. 4월 중순 들어 주말 동안 강풍과 눈비에 난리블루스를 추더니 꽃구경은 지나갔다. 부천 원미산의 진달래, 응봉산 전체를 덮은 개나리, 뒤늦게 탐스럽다는 서산 개금사의 왕벚꽃 등 이웃 사람들이 꽃구경 애길 해도 강 건너 불구경이었는데, 제주 4.3 희생자 추모제 덕에 하루 방송 접고 내려가면서 원없이 벚꽃 구경을 했다. 벚꽃 그늘 아래 행복했었다.

이어서 동생들과 짝막한 1박 2일 아닌 1박 1일 정도 길이의 군산행이 또 좋았다. 올 엄마는 애면글면 자식 바라기도 아니셨지만 살갑게 보듬어 주지도 않았다. 그래서인지 딸 셋도 서로의 속 얘기를 털어놓고 소통하는 게 어설피는데, 차 타고 가는 길에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특히나 하루에도 두서너 번씩 엄마께 전화로 미주알고주알 나누던 막내의 허전함은 말해 뭐하겠나? 우린 막내의 얘기를 주로 들었다.

희경의 지인이 맛집과 숙소 예약까지 도와줘서 시간도 많이 아꼈

다. 나는 일단 호사스럽지 않을 것, 소박한 찐 맛집을 부탁했는데 짬뽕 골목 안의 짬뽕집, 오징어무국집, 재래시장 구경까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마침 1일 6일 대야오일장까지 열려서 참 좋았다.

많은 꽃과 유실수를 볼 수 있는 나무 시장이 독특했고 다양했다. 심봉사가 먹다 너무 맛나서 눈을 번쩍 떴다는 장터 짜장과 코리아 제과의 햄버거는 배가 불러 못 먹었지만, 제일 아쉬운 건 시간 없어 지나친 고구마순감자탕이었다. 또 가면 된다지만 여행길의 또 오자는 약속은 지키기 어렵더라.

우리 딸 셋은 자투리 시간에 여행을 많이 하기로 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세 번. 운전 너무 많이 안 하는 근교의 도시들, 아침 일찍 떠나서 이른 저녁의 귀가가 가능한 곳. 희경이네 둘째가 “다닐 수 있을 때 자주 다니셔. 얼마 안 남았어” 하더라. 막내 이모 말 많이 들어주고 야단치지 말라는 부탁도 곁들였단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얘기 들어주고 기분 좋게 다녀오니까 몸살 기운도 달아난 듯하다며 막내가 톱을 보냈다. 알뜰하게 보낸 여행이었다. 특히 새로 지은 호텔에선 새집 냄새도 없고 아주 조용하고 깔끔해서 잘 쉬었다.



## 양관식? 학씨!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양관식은 판타지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등장하는 애순의 남편이자 금명이 은명이의 아빠 양관식 말이다.

일단 이 작품이 얼마나 감동적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다. 60년대 제주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시작하는 이 드라마는 요 몇 년 사이 보았던 그 어떤 영화 드라마보다 나의 눈물 콧물을 쏙 빼놓았다. 소파 옆 내 아내의 눈물도.

처음엔 그저 그 옛날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회차가 진행될수록 이건 우리 엄마 아빠의 이야기, 그들의 자식들 이야기, 또 부모가 된 자식들의 이야기다. 부모님 두 분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키워주셨구나. 우리 부모 세대의 자식 사랑은 정말 위대하구나. 나는 과연 당신들에게서 받은 사랑만큼 내 자식들을 아끼고 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아마 이 드라마를 시청한 분들의 최근 통화 목록을 보면 부모님께 혹은 아내 남편 아니면 자녀들에게 평상시보다 더 자주 전화한

기록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엔 지독히도 가난한 가정과 가부장적인 시대 속에서도 곳곳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애순이 있다.

하지만 내가 앞에서도 밝혔듯 오늘의 문제적 남자는 바로 양관식이다. 이 인물은 처음부터 드라마의 끝까지(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오직 애순만을 아끼고 사랑한다. 거기다 자식 사랑은 어떠한가. 아니 장녀 금명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면서 화내는 게 고작 “양금명!”이라고 크게 소리친 게 전부다. 거기다 차남 은명이는 어떠한가. 자녀 중 누구 하나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지 않는다. 아내와 자녀들 앞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이 먼저인 게 없는 사람이다. 그저 가족들이 늘 최우선인 남편이자 아빠. 그런 역할을 무결점의 사나이 박보검이 연기하니 인정할 수밖에. 또한 아이러니하게 ‘부부의 세계’에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며 본인의 외도를 당당히 외치는 역할을 했던 박해준이 중년의 양관식을 가슴 절절하게 연기

한다.

그런 양관식의 대처점에 있는 남편이 바로 ‘학씨’ 부상길이다. 돈이 많지만 늘 아내를 외면하고 다른 여성들에게 눈을 돌리고 심지어 폭력을 일삼는 최악의 남편. 게다가 늘 욕을 입에 달고 살아 자녀들도 그 욕을 습관처럼 따라 하게 하는 나쁜 아빠. 하지만 그조차 가족들을 향한 자신만의 사랑 표현이 있다.

그렇게 보는 내내 나는 과연, 내 남편은 과연 양관식인가 부상길인가를 떠올렸을 것이다.

나는 자신 있게 말한다. 우리 남성시대 형님 아우님들은 모두 판타지 같은 양관식이라고.

집 안 청소 잘하는 양관식. 분리배출 잘하는 양관식. 설거지 잘하는 양관식. 마트에서 카트 운전 잘하는 양관식. 음식물쓰레기 잘 버리는 양관식. 아이와 잘 놀아주는 양관식. 술에 취해 집에 갈 때마다 두 손 무겁게 간식을 사 들고 가는 양관식. 우린 모두 좋은 남편이자 아빠라고.

“학씨! 무거운 건 내가 든다니까! 학씨!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고르라니까!”



IBK 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쉬운 퇴직연금?  
**IBK 연금 Easy!**  
 쉬운 노후준비?  
**IBK 연금 Easy!**  
 쉬운 투자관리?  
**IBK 연금 Easy!**

고민도, 할 일도 많은 직장인을 위해  
 IBK 연금Easy가 함께합니다.  
 국책은행의 안정적인 운용으로 믿을 수 있는 연금관리부터  
 나를 위한 연금진단, 투자성향 분석, 포트폴리오 추천까지  
 Easy한 연금 시대,  
 IBK기업은행이 시작합니다.



연금 | 자산건강도, 예상연금액, 예상연금액, 포트폴리오 |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 제공, RA 활용한 퇴직연금 | 고객 성향, 시장 상황에 맞는  
 탐구 | 고객분류를 통한 사전진단 | 추천 | 상시·경기 포트폴리오 관리로 변동성 최소화 | 일일형 서비스 | 인공지능 포트폴리오 추천 관리 서비스

직장인을 잘 아는 기업은행의 연금관리 플랫폼, 연금Easy! I-ONE Bank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RA: 로보어드바이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6379(2024.10.29) 윤호기(2025.10.28) ※자세한 문안은 거래점영업 또는 고객센터(1566-256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지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책임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2월 5년간(월)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관리(보험료 포함) 보호상품입니다. ※과세기간 및 과세항목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지속 계약기간 연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이 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납입연금 및 수익에 대하여 과세소득(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바(금융소사)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중립적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IBK가  
바꾼 삶.

# 나는 요즘, 고민 없이 사는 중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월 적립 한도 없이

IBK포인트 3.8로  
고민 없이  
1.5% 적립 받는 삶,

내 일상이 되다



**IBK포인트 3.8**



**이 모든 혜택은 카드앱에서**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5-C1d-04678호(2025.04.14.~2026.04.13.) 준비감사인 심의필 제2025-2388호(2025.04.02.) [유효기간:2026.03.30.]

\*연회비: 국내전용(BC 3만 원) 연회비, 해외결연(VISA, Master) 3만 원 연회비, 전월 실적 5만 원 이상 경우 해당 제공. 전월실적 및 통장 월 평균잔고 등 자세한 사항은 앱(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지원: 해외결연(VISA, Master) 3만 원 연회비, 전월 실적 5만 원 이상 경우 해당 제공. 전월실적 및 통장 월 평균잔고 등 자세한 사항은 앱(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와 유이자 할부 기간: 1. 개별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 (업종별 최고금리 20% 이내) \* 단, 연방생상사법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이율에 같이 적용함. 2. - 일시불 거래 연회비: 1. 기업은행생상사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유이자 할부 기간 연회비: 1. 기업은행생상사의 동일할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형상 상사발행일과 상호금융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특별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금리(신규 대출기준) - 상형상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이 적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가가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한리(최초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를 연체할 경우, 모든 할리금을 연체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가 발급이 무적당한 경우 연체금 보류,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호」제4항에 따라 앱(기업은행)으로 혼편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수 있습니다.